

氣口脈診法の藏府配屬에 관한 研究

I. 緒論	226
II. 本論	227
1. 診脈法の時代的變遷	227
1) 『內經』의 診脈法	227
2) 『難經』의 診脈法	232
3) 『傷寒論』의 診脈法	234
4) 『脈經』의 診脈法	237
2. 氣口診脈法の藏府配屬理論	238
1) 寸關尺法の藏府配屬理論	239
2) 輕重法の藏府配屬理論	245
III. 結論	249
參考文獻	250
Abstract	251

氣口脈診法の藏府配屬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黃元德, 金重漢

博士學位論文

I. 緒論

韓醫學의 診斷方法은 望·聞·問·切로 나뉘어진다. 脈診은 四診 가운데 切診에 속하는데, 脈搏의 '常'과 '變'에 근거하여 인체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또한 정상인의 무병한 平脈으로부터 환자의 病脈을 분석해내며, 病脈에 근거하여 병이 어느 經脈 혹은 어느 藏에 있는가, 表裏·寒熱·虛實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병의 進退와 豫後등을 推斷하는 진찰방법이다. 그러나 脈은 그 변화가 매우 미세하여 外證에 비해 식별하기 어려우며, 形氣, 七情, 外感, 飲食, 起居, 나이, 周圍環境등에 의해서도 變하고, 醫家마다 脈診에 대한 이론에 相異한 점이 있어 脈理는 幽而難明하여 말로 전하기가 어렵다고¹⁾ 하였다.

『內經』의 診脈法은 經脈의 박동처를 切診하는 遍診法인 十二經診法과 三部九候法이 있으며, 그리고 氣口人迎法 및 氣口診脈法 등이 있다. 그 가운데 氣口는 百脈을 朝會케하는 手太陰肺經 가운데 脈氣가 가장 잘 나타나는 太淵 經渠穴 부위에 해당되며, 寸口, 脈口라고도 칭한다. 『素問·

五藏別論』에서 "氣口亦太陰也, 是故五藏六府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²⁾라 하여, 氣口에서 藏府의 變化를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內經』에서는 氣口를 寸關尺으로 나누고 거기에 藏府를 配屬시킨 문장은 찾아 볼 수 없지만, 『難經』, 『脈經』이 나온 이후 元代의 滑壽, 明代의 馬蒔, 李時珍, 張介賓, 清代의 張志聰, 徐大椿 등은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尺部の 藏府配屬을 論한 經文이 寸關尺診法の 효시가 된다고 하였다.

한편 『難經』에 이르러 비로소 二難에서 寸關尺과 五難에서 輕重法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王叔和의 『脈經』에 이르러 氣口兩手寸關尺의 藏府配屬理論이 확립되었다.

본 論文은 『內經』으로부터 『難經』, 『傷寒論』, 『脈經』에 이르기까지 診脈法の 시대적 變遷과정을 살펴본 후, 氣口診脈法の 藏府配屬에 관하여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法을 설명한 經文을 중심으로, 이를 寸關尺診法으로 주장한 醫家와 輕重診法으로 주장한 醫家들의 논설을 比較, 研究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1)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 45~46. "脈之理微, 自古記之. 昔在黃帝, 生而神靈, 猶曰若窺深淵而迎浮雲. 許叔微曰: 脈之理幽而難明."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42.

II. 本 論

【도표 1】

經 脈	穴 處	部 位	經 脈	穴 處	部 位
手太陰肺經	太淵	氣口	手陽明大腸經	陽溪	手合谷上
足太陰脾經	衝門	腹下前 股溝縫	足陽明胃經	衝陽	足跗
手少陰心經	陰郤	神門內	手太陽小腸經	天窗	喉旁
足少陰腎經	太溪	踝裡旁穴	足太陽膀胱經	委中	腘窩
手厥陰心包經	勞宮	掌心	手少陽三焦經	和膠	耳與目 之間
足厥陰肝經	太衝	足大趾 上跗	足少陽膽經	懸鍾	外廉踝 之上

1. 診脈法の 時代的 變遷

1) 『內經』의 診脈法

『內經』의 診脈法에는 序論에서 언급했듯이 遍診法이라 불리는 十二經診法, 三部九候診法과 人迎氣口診法, 氣口診法, 尺膚診法등이 기재되어 있다.

(1) 十二經診法

十二經診法은 手足三陰三陽 十二經 중 맥동이 잘 나타나는 각 穴處에서 脈의 動靜을 살피는 診脈法이다. 『內經』에 비록 十二經에서 診脈함을 분명히 밝힌 부분은 없지만, 『素問·方盛衰論』에 “診有大方……按脈動靜.”³⁾이라는 내용이 있고, 『靈樞·經脈篇』에 “經脈者, 所以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 脈之卒然動者 皆邪氣居之.”⁴⁾라는 내용

3) 前掲書, p. 322.

이 있다. 이로써 보면, 十二經에는 모두 이러한 등맥이 있기 때문에, 十二經의 變動을 진찰하려면 十二經의 搏動處를 切診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靈樞·經脈篇』에 每條經의 起止를 敘述한 후 “是動則病……”⁵⁾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十二經의 變動을 觀察하는 것이 고대 초기의 診脈方法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十二經에서 맥박을 살필 수 있는 經穴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참조.)

(2) 三部九候法

三部九候脈法은 『素問·三部九候論』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三部九候論』: 天地之至數, 始於一, 終於九焉. 一者天, 二者地, 三者人, 因而三之, 三者九, 以應九野. 故人有三部, 部有三候, 以決死生, 以處百病, 以調虛實, 而除邪疾.⁶⁾

『素問·三部九候論』: 上部天, 兩額之動脈; 上部地, 兩頰之動脈; 上部人, 耳前之動脈. 中部天,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79

5) 上掲書, pp. 79~83.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81.

手太陰也；中部地，手陽明也；中部人，手少陰也。下部天，足厥陰也；下部地，足少陰也；下部人，足太陰也。故下部之天以候肝，地以候腎，人以候脾胃之氣。……中部天以候肺，地以候胸中之氣，人以候心。上部天以候頭角之氣，地以候口齒之氣，人以候耳目之氣。⁷⁾

『素問·三部九候論』：三部者，各有天，各有地，各有人。三而成天，三而成地，三而成人。三而三之，合則爲九，九分爲九野，九野爲九藏。故神藏五，形藏四，合爲九藏。⁸⁾

인체는 天地間에 居하므로 上에는 天이 있고 下에는 地가 있어 위치적으로 관찰할 때 上中下로 관찰하는 것은 天地人 三才思想에 근거하고 있다. 天地人 三才思想을 天地의 數로 설명하면 一은 天, 二는 地, 三은 人이며, 一에서 시작하여 九에서 終한다. 九는 九野에 應하는 것으로, 三部에 근거하여 九候로 나누어 死生을 결정하고 百病을 처리하며 虛實을 조절하여 邪疾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체를 관찰함에 있어 天地人 三才思想에 의해 上中下部의 各部에 天地人의 三才가 있는 三部九候의 위치적 관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三部九候脈法에서는 인체의 藏府가 아홉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天地自然의 九野에 應하는 것으로 九藏은 九野에 應한다고 하였다. 九藏에 대해서는 兩說이 있는데, 王冰은 神藏五를 肝, 心, 脾, 肺, 腎이라 하고, 形藏四를 頭角, 耳目, 口齒, 胸中이라고⁹⁾ 하였고, 張志聰은 神藏

五를 肝, 心, 脾, 肺, 腎이라 하고, 形藏四를 胃, 大腸, 小腸, 膀胱이라고¹⁰⁾ 하였다.

위의 經文에 의거하여 三部九候의 診脈部位와 診候를 살펴보면, 上部天은 兩額의 動脈이라 하였으니, 足少陽膽經의 兩額兩傍근처에 있는 太陽穴處에 해당되며, 頭角之氣를 候한다. 上部地는 兩額의 動脈이라 하였으니, 足陽明胃經의 鼻兩傍인 巨髎穴處에 해당되며, 口齒之氣를 候한다. 上部人은 耳前의 動脈이라 하였으니, 手少陽三焦經의 耳前陷中의 耳門穴處에 해당되며, 耳目之氣를 候한다. 中部天은 手太陰이라 하였으니, 手太陰肺經의 太淵穴, 經渠穴處에 해당되며, 肺를 候한다. 中部地는 手陽明이라 하였으니, 手陽明大腸經의 合谷穴處에 해당되며, 胸中之氣를 候한다. 中部人은 手少陰이라 하였으니, 手少陰心經의 神門穴處에 해당되며, 心을 候한다. 下部天은 足厥陰이라 하였으니, 足厥陰肝經의 五里穴, 太衝穴處(婦人)에 해당되며, 肝을 候한다. 下部地는 足少陰이라 하였으니, 足少陰腎經의 太谿穴處에 해당되며, 腎을 候한다. 下部人은 足太陰이라 하였으니, 足太陰脾經의 箕門穴處에 해당되며, 脾胃之氣를 候한다고 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참조)

(3) 人迎氣口診法

『素問·陰陽別論』：三陽在頭，三陰在手。¹¹⁾

者，皆如器外張虛而不屈含藏於物，故云形藏也。所謂形藏四者，一頭角，二耳目，三口齒，四胸中。”

10) 張志聰, 素問集注, 서울, 大星出版社, 1994, p. 178. “夫五味入口，藏于腸胃，味有小腸，以養五氣，氣化而生，津液相成，神乃自生，是五藏之神，由養胃津液之所生也。胃主化水穀之津液，大腸主津，小腸主液，膀胱者津液之所藏，故以四府爲形藏，而人之陰陽氣血肌肉經脈皆由此，九藏之所生，五藏之神氣由形藏之資生，五色之外榮由五藏之所發，此以九藏九候之氣，而復歸中于五藏之神氣焉。”

7) 上揭書, p. 81.

8) 前揭書, p. 81.

9) 王冰, 補註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 185. “所謂神藏者，肝藏魂，心藏神，脾藏意，肺藏魄，腎藏志也。以其皆神氣居之，故云神藏五也。所謂形藏

【 図表 2 】

三部	九候	脈動處	部位(穴名)	候九藏
上部	天	兩額之動脈	額兩傍近于太陽 足少陽經	頭角之氣
	地	兩頰之動脈	鼻兩傍近于巨髎 足陽明經	口齒之氣
	人	耳前之動脈	耳前陷者中近于耳門 手少陽經	耳目之氣
中部	天	手太陰	寸口(太淵, 經渠)	肺
	地	手陽明	合谷	胸中之氣
	人	手少陰	神門	心
下部	天	足厥陰	五里, 太衝(婦人)	肝
	地	足少陰	太谿	腎
	人	足太陰	箕門	脾胃之氣

陽明也.¹⁵⁾

『素問·六節藏象論』：人迎一盛病在少陽，二盛病在太陽，三盛病在陽明，四盛已上爲格陽。寸口一盛病在厥陰，二盛病在少陰，三盛病在太陰，四盛已上爲關陰。人迎與寸口俱盛，四倍已上爲關格。關格之脈贏，不能極於天地之精氣，則死矣。¹²⁾

『素問·至真要大論』：夫子言察，陽所在而調之，論言人迎與寸口相應，若引繩，小大齊等，命曰平。¹³⁾

『靈樞·四時氣』：持氣口人迎，以視其脈，堅且盛且滑者，病日進，脈軟者，病將下。諸經實者，病三日已。氣口候陰，人迎候陽也。¹⁴⁾

『靈樞·寒熱病』：頸側之動脈人迎，人迎，足

『靈樞·禁服』：黃帝曰：寸口主中，人迎主外，兩者相應，俱往俱來，若引繩大小齊等，春夏人迎微大，秋冬寸口微大，如是者，名曰平人。人迎大一倍於寸口，病在足少陽，一倍而躁，在手少陽。人迎二倍，病在足太陽，二倍而躁，病在手太陽。人迎三倍，病在足陽明，三倍而躁，病在手陽明。盛則爲熱，虛則爲寒，緊則爲痛痺，代則乍甚乍間。盛則瀉之，虛則補之，緊痛則取之分肉，代則取血絡，且飲藥，陷下則灸之，不盛不虛，以經取之，名曰經刺。人迎四倍者，且大且數，名曰溢陽，溢陽爲外格，死不治。必審按其本末，察其寒熱，以驗其藏府之病。寸口大於人迎一倍，病在足厥陰，一倍而躁，在手心主。寸口二倍，病在足少陰，二倍而躁，在手少陰。寸口三倍，病在足太陰，三倍而躁，在手太陰。盛則脹滿，寒中食不化，虛則熱中，出糜少氣，溺色變，緊則痛

12) 上掲書, p. 37.

13) 前掲書, p. 294.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掲書, p. 124.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31.

12) 上掲書, p. 37.

痺，代則乍痛乍止。盛則瀉之，虛則補之，緊則先刺而後灸之，代則取血絡，而後調之，陷下則徒灸之，陷下者，脈血結於中，中有著血，血寒，故宜灸之，不盛不虛，以經取之。寸口四倍者，名曰內關，內關者，且大且數，死不治。必審察其本末之寒溫，以驗其藏府之病。¹⁶⁾

人迎 氣口脈은 人迎脈과 氣口脈의 相應 관계로 陰陽의 有餘와 不足 및 平과 不平을 아는 脈法이다.¹⁷⁾ 王冰은 『素問·陰陽別論』의 “三陽在頭，三陰在手”의 註에서 “頭는 人迎을 말하고 手는 氣口를 말한다. 氣口는 手魚際之後 一寸에 있고, 人迎은 結喉兩傍 一寸五分에 있는데, 이 모두에서 藏府의 氣를 살필 수 있다.”¹⁸⁾고 하였다. 따라서 人迎 氣口脈은 頸側의 動脈인 人迎脈과 手太陰脈인 寸口脈을 按脈하여 서로 비교해서 病變을 살피는 脈法이다.

人迎脈의 크기가 寸口脈의 一倍이면 病은 足少陽에 있고, 一倍이면서 躁하면 病은 手少陽에 있으며, 二倍이면 病은 足太陽에 있고, 二倍이면서 躁하면 病은 手太陽에 있으며, 三倍이면 病은 足陽明에 있고, 三倍이면서 躁하면 病은 手陽明에 있으며, 四倍이면서 大하고 數한 것을 溢陽이라 하고, 四盛已上을 格陽이라 한다.

寸口脈의 크기가 人迎脈의 一倍이면 病은 足厥陰에 있고, 一倍이면서 躁하면 病은 手心主에 있으며, 二倍이면 病은 足少陰에 있고, 二倍이면서 躁하면 病은 手少陰에 있으며, 三倍이면 病은 足太陰에 있고, 三倍이면서 躁하면 病은 手太陰에

있으며, 四倍이면서 大하고 數한 것을 內關이라 하고, 四盛已上을 關陰이라 한다. 그리고 人迎脈과 寸口脈이 모두 盛하여 四倍已上을 關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人迎脈은 三陽의 氣를 대표하므로, 外와 表를 主하고 六府의 상태를 알 수 있고, 氣口脈은 三陰의 氣를 대표하므로, 內와 裏를 主하고 五藏의 상태를 알 수 있다.

(4) 氣口診脈法

『素問·五藏別論』：氣口亦太陰也，是以五藏六府之氣味，皆出於胃，變見於氣口。¹⁹⁾

『素問·平人氣象論』：寸口之脈中手短者，曰頭痛。寸口脈中手長者，曰足脛痛，寸口脈中手促上擊者，曰肩背痛。寸口脈沈而堅者，曰病在中。寸口脈浮而盛者，曰病在外。寸口脈沈而弱，曰寒熱及疝瘕少腹痛。寸口脈沈而橫，曰脇下有積，腹中有橫積痛。寸口脈沈而喘，曰寒熱。²⁰⁾

『素問·經脈別論』：氣口成寸，以決死生。²¹⁾

『靈樞·經脈』：經脈者，常不可見也，其虛實也，以氣口知之。²²⁾

氣口에서 五藏六府의 氣가 드러나므로, 獨取寸口하여 死生을 決定하며 虛實을 判別할 수 있으며, 長短浮沈 등으로 病證을 診斷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니, 氣口診脈法만으로도 독립적으로 病證을 診斷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 上揭書, pp. 221~222.

17) 上揭書, p. 71. “持其脈口人迎, 以知 陽有餘不足, 平與不平, 天道畢矣.”

18) 王冰, 補註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80. “頭謂人迎, 手謂氣口,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繩小大等齊者, 名曰平人, 故言所謂一也, 氣口在手魚際之後一寸, 人迎在結喉兩傍一寸五分, 皆可以候藏府之氣.”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42.

20) 上揭書, p. 65.

21) 上揭書, p. 86.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揭書, p. 84.

(5) 尺膚觸診法

『素問·平人氣象論』：人一呼脈三動，一吸脈三動而躁，尺熱曰病溫，尺不熱脈滑曰病風。²³⁾

『素問·通評虛實論』：絡氣不足，經氣有餘者，脈口熱而尺寒也。²⁴⁾

『靈樞·邪氣藏府病形』：夫色脈與尺之相應也，如桴鼓影響之相應也。……脈急者，尺之皮膚亦急。脈緩者，尺之皮膚亦緩。脈小者，尺之皮膚亦減而少氣。脈大者，尺之皮膚亦賁而起。脈滑者，尺之皮膚亦滑。脈濇者，尺之皮膚亦濇。凡此變者，有微有甚，故善調尺者，不待於寸。²⁵⁾

『靈樞·論疾診尺』：尺膚滑，其淖澤者，風也。尺肉弱者，解休，安臥脫肉者，寒熱，不治。尺膚滑而澤脂者，風也。尺膚濇者，風痺也。尺膚蠶如枯魚之鱗者，水洩飲也。尺膚熱甚，脈盛躁者，病溫也，其脈盛而滑者，病且出也。尺膚寒，其脈小者，泄，少氣。尺膚炬然，先熱後寒者，寒熱也。尺膚先寒，久大之而熱者，亦寒熱也。²⁶⁾

尺膚診法은 尺膚를 촉진하여 체내의 질병을 진단하는 법으로, 尺膚의 緩急大小滑濇, 肉之堅脆를 통하여 風, 解休安臥, 寒熱不治, 風痺, 水洩飲, 病溫, 泄, 少氣 등 인체의 전반적인 증상으로 설명하였으며, 『靈樞·論疾診尺』에서는 尺膚診法 외에 여러 부위의 觸診法을 설명하고 있다.²⁷⁾ 이 觸膚

法들은 肘, 手, 肘前, 肘后, 臂中, 掌中, 魚上 등의 膚를 촉진하여, 腰, 膺, 肩背, 腰腹, 腸, 腹 등 신체 의 특정한 부위의 증상을 알아내는 법이다.

그리고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는 寸口, 尺膚와 色 三者를 결합한 진찰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三者間의 相得, 不相得을 관찰하여 疾病의 豫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楊上善과 王冰은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을 尺膚診法으로 해석하였으나²⁸⁾ 29), 滑壽가 이를 兩手寸關尺法의 효시가 되는 문장이라고 한 이후, 明代 馬蒔, 張介賓, 清代 張志聰, 徐大椿 등이 모두 이에 영향을 받아 氣口寸關尺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考證學方面에 탁월한 近代日本 醫家인 丹波元簡은 『素問識』에서 다음과 같이 氣口寸關尺으로 해석한 說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尺膚診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丹波元簡은 “王冰이 注하기를, ‘尺澤의 內라고 하는 것은 尺膚의 部位를 살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素問·平人氣象論』의 ‘尺澁脈滑’, ‘尺滑脈細’를 王冰은 또한 尺膚라고 註하였다. 『靈樞·邪氣藏府病形篇』에 ‘善調尺者, 不待于寸.’이라 하였고, 또 ‘夫色脈與尺之相應, 如桴鼓影響之相應’이라고 하였으며, 『靈樞·論疾診尺篇』에서는 ‘尺膚澤, 尺肉弱’이라고 하였다. 十三難에서는

腹中熱, 掌中寒者腹中寒. 魚上白肉有青血脈者胃中有寒.”

2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出版社, 1986. p. 217. “附當爲膚, 古通用字, 故爲附耳. 當尺裏以上皮膚, 以候胸中之病.”

29) 王冰, 補注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152. “尺內謂尺澤之內也, 兩傍名謂尺之外側也, 季脅近腎, 尺主之, 故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謂尺之外側也, 尺裏謂尺之內側也, 次尺外下兩傍則季脅之分, 季脅之上腎之分, 季脅之內則腹之分也. 肝主貢, 貢鬲也. 脾居中, 故以內候之, 胃主市, 故以外以候之. 肺葉垂外, 故以外候之, 胸中主氣管, 故以內候之. 心主鬲中也, 臍中則氣海也, 噎也.”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65.

24) 上掲書, p. 107.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掲書, p. 37.

26) 上掲書, p. 309.

27) 上掲書, p. 309. “肘所獨熱者腰以上熱, 手所獨熱者腰以下熱, 肘前獨熱者膺前熱, 肘後獨熱者肩背熱, 臂中獨熱者腰腹熱, 肘後粗以下三四寸熱者腸中有蟲, 掌中熱者

‘脈數尺之皮膚亦數，脈急尺之皮膚亦急’이라 하였고, 『史記·倉公傳』에도 ‘切其脈，順其尺.’이라고 하였으며, 仲景도 ‘按寸不及尺’이라고 하였으니, 이 모두는 尺을 뜻하는 것이다. …… 여기서의 尺은 臂內의 一尺之部分이며, 寸關尺의 尺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³⁰⁾라고 하였다. 이후 최근 中國學者인 程士德³¹⁾, 李今庸³²⁾ 등도 本經文을 尺膚診法이라고 한 丹波元簡의 說이 옳다고 하였다. 이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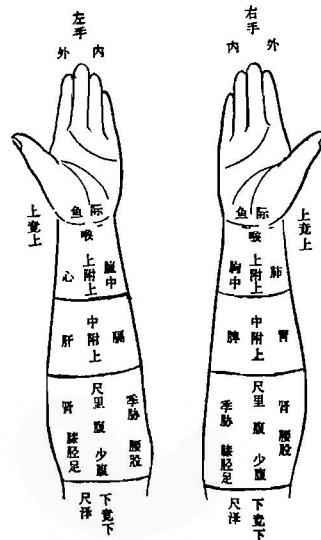
2) 『難經』의 診脈法

30) 丹波元簡, 聿修堂醫書選(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111~112. “王注, 謂尺澤之內也, 此即診尺膚之部位. 「平人氣象論」云 ‘尺澁脈滑’, ‘尺滑脈細’, 王注亦云, 謂尺膚也. 「邪氣藏府病形篇」云, ‘善調尺者, 不待于寸.’, 又云, ‘夫色脈與尺之相應, 如桴鼓影響之相應’, 「論疾診尺篇」云, ‘尺膚釋…尺肉弱’, 十三難云, ‘脈數尺之皮膚亦數, 脈急尺之皮膚亦急’, 「史記·倉公傳」亦云, ‘切其脈, 順其尺.’, 仲景云, ‘按寸不及尺’. 皆其義也. 而其所以謂之尺者. ……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 而決非寸關尺之尺也.”

31) 程士德,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253. “据「內經」無寸關尺三部脈的記載, 而「素問·平人氣象論」有‘尺熱’, ‘尺寒’, 「靈樞·論疾診尺」有‘尺膚釋’等文, 故當以王冰, 丹波元簡注爲是.”

32)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 365. “本段‘尺’的含義, 多數注家認爲是寸口脈寸關尺三部之‘尺’, 并据此以注釋上中下三部臟腑分部, 這是與「內經」本意不符的. 考「內經」全書, 并無寸口脈分三部的記載. 迨至「難經·二難」, 才首次提出‘從關至尺是尺, 內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是寸, 內陽之所治也.’,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 鑒于審察尺膚是「內經」診法的一个重要內容, 楊上善, 王冰從診尺膚的角度注釋本段原文是可取的. 以尺膚分三部配屬臟腑進行觸診, 在後世應用已不多見. 然而「內經」這種配屬法則却被後世醫家移用作爲寸口三部九候診法的定位依据. 例如, 「難經·十八難」‘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上部法天, 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 中部法人, 主膈以下至臍之有疾也; 下部法地, 主臍以下至足之有疾也.’ 「脈經」以降迄今, 盛行‘左手心肝腎, 右手肺脾命’的寸關尺脈象定位說, 然考其淵源, 當是在本段經旨的啓迪下逐漸形成的.”

【그림 7】



尺肤切診部位示意图

『難經』은 問難의 형식으로 古醫經을 해석한 이론서이다. 全書는 모두 81개의 문제를 토론하였으므로, 八十一難이라 稱한다. 이 중 脈診을 주로論한 篇은 一難에서부터 二十二難까지 전체의 四分의 一이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史記』에 診脈法은 扁鵲에서 나왔다³³⁾는 말이 아마 이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難經』의 脈法에는 十六難에서 “三部九候法, 陰陽法, 輕重法, 六十首 등이 있다.”³⁴⁾고 집약해서 말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三部九候法

『難經·二難』: 脈有尺寸何謂也, 然尺寸者脈

33) 王利器主編, 史記注譯 卷四, 北京, 三秦出版社, 1988, p. 2119, “至今天下言脈者, 由扁鵲也.”

34) 滑壽, 難經本義, 台南, 世一書局有限公司, 1977, p. 45. “脈有三部九候, 有陰陽, 有輕重, 有六十首.”

之大要會也，從關至尺，是尺內，陰之所治也。從關至魚際，是寸口內，陽之所治也。故分寸爲尺，分尺爲寸。故陰得尺內一寸，陽得寸內九分。尺寸終始一寸九分，故曰尺寸也。³⁵⁾

『難經·十八難』：脈有三部，部有四經，手有太陰陽明，足有太陽少陰，爲上下部何謂也？然，手太陰陽明金也，足少陰太陽水也，金生水，水流下行而不能上，故在下部也。足厥陰少陽木也，生手太陽少陰火，火炎上行而不能下，故爲上部。手心主少陽火生足太陰陽明土，土主中宮，故在中部也。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脈有三部九候，各何主之。然，三部者，寸關尺也，九候者，浮中沈也，上部法天，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中部法人，主膈以下至臍之有疾也，下部法地，主臍以下至足之有疾也。³⁶⁾

『內經』의 三部九候法은 전신을 九候로 나누어 살피는 遍診法이며, 『難經』의 三部九候法은 寸口 한 곳을 三部와 浮中沈으로 나누어 살피는 獨取寸口法이다. 寸口の 三部는 寸關尺을 말하는데, 關에서 尺澤穴側으로 一寸이 되는 부위를 尺, 關에서 魚際側으로 九分이 되는 부위를 寸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難經』의 三部九候法은 전신을 두루 살피는 『內經』의 三部九候法에 비해 간편한 診脈法이기 때문에, 후대에 이르면 『內經』의 三部九候法은 퇴색되었고, 『難經』의 三部九候法을 근거로 하여 寸關尺法の 藏府配屬理論이 발전되었다.

『難經』의 三部九候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도표 3】참조)

(2) 陰陽法

『難經·四難』：呼出心與肺，吸入肝與腎，呼吸之間，脾受穀氣也，其脈在中。浮者陽也，沈者陰也，故曰陰陽也。心肺俱浮，何以別之。然浮而大散者心也。浮而短濇者肺也，腎肝俱沈，何以別之。然牢而長者肝也。按之濡。舉指來實者腎也。脾者中州，故其脈在中。是陰陽之法也。³⁷⁾

陰陽法은 呼吸과 陰陽을 논한 診脈法으로, 呼吸時에 呼氣는 心과 肺에서 出하고 吸氣는 腎과 肝으로 入하며 呼吸之間에 脾가 穀味를 받기 때문이라고 位置設定理由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浮部에서는 心肺, 中部에서는 脾, 沈部에서는 肝腎을 알 수 있다.

【도표 3】

三部	經脈配屬			
上部	手 少 陰	手 太 陽	手 太 陰	手 陽 明
	火		金	
中部	足 厥 陰	足 少 陽	足 太 陰	足 陽 明
	木		土	
下部	足 少 陰	足 太 陽	手 心 主	手 少 陽
	水		火	

脈象에서는, 肺는 浮而短濇하고 心은 浮而大散

35) 上掲書, pp. 15~17.

36) 上掲書, pp. 50~51.

37) 前掲書, pp. 20~21.

하며 肝은 牢而長하고 腎은 按之濡 舉指來實하며 脾는 脈이 中에 있다고 하여 脈象에 의해서도 구별이 된다.

이상에서 陰陽法의 診脈方法은 五藏의 診脈部位를 浮沈으로 配屬한 輕重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輕重法

『難經·五難』: 脈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脈, 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之重, 與血脈相得者, 心部也. 如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 如十二菽之重, 如筋平者, 肝也. 按之至骨, 舉指來疾者, 腎部也, 故曰輕重也.³⁸⁾

이는 四難의 陰陽法에 근거하여 五藏診脈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按脈時에 三菽의 무게로 按하여 皮毛와 相平한 것이 肺요, 六菽의 무게로 按하여 血脈과 相平한 것이 心이요, 九菽의 무게로 按하여 肌肉과 相平한 것이 脾요, 十二菽의 무게로 按하여 筋과 相平한 것이 肝이요, 骨에 이르도록 按하여 舉指來疾한 것이 腎이라고 하여, 肢體에 皮脈肉筋骨等 層數가 있듯이, 淺部에서 深部까지를 按之하여 不同한 深度에 따라서 五藏의 虛實을 살피는 診脈法임을 알 수 있다.

(4) 六十首

六十首는 『素問·方盛衰篇』에서 “聖人持診之道, 先後陰陽而持之, 奇恒之勢, 乃六十首.”³⁹⁾라 하여, 단지 六十首의 명칭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王冰은 ‘奇恒六十首, 今世不傳.’⁴⁰⁾이라 註하여 今世

에 傳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六十首는 失傳된 古代診脈方法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 『傷寒論』의 診脈法

『傷寒論』의 診脈法은 氣口診脈法, 足陽明趺陽脈診法 및 足少陰太谿脈診法等이 있는데, 氣口診脈法은 「平脈法」과 「六經病脈證并治」篇에서 『難經』의 寸關尺法과 輕重法을 인용하였고, 足陽明趺陽脈診法과 足少陰太谿脈診法은 『傷寒論』에서 臨床과 결합하여 유독 중시한 診脈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傷寒論』의 氣口診脈法, 足陽明趺陽脈診法 및 足少陰太谿脈診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氣口診脈法

『傷寒論·平脈法』: 問曰脈有三部, 陰陽相乘, 榮衛氣血在人體躬, 呼吸出入, 上下於中, 因息遊布, 津液流通, 隨時動作, 效象形容, 春弦秋浮冬沈夏洪, 察色觀脈, 大小不同, 一時之間, 變無經常, 尺寸參差, 或短或長, 上下乖錯, 或存或亡, 病輒改易, 進退低昂, 心迷意惑, 動失紀綱, 願爲具陳, 令得分明. 師曰子之所問, 道之根源, 脈有三部, 尺寸及關, 榮衛流行, 不失衡銓. 腎沈心洪肺浮肝弦, 此自經常, 不失銖分. 出入升降, 漏刻周旋, 水下百刻, 脈一周身, 當復寸口, 虛實見焉.⁴¹⁾

『傷寒論·平脈法』: 問曰, 經說, 脈有三菽, 六菽重者, 何謂也? 師曰, 脈者人以指按之, 如三菽之重者, 肺氣也, 如六菽之重者, 心氣也, 如九菽之重者, 脾氣也, 如十二菽之重者, 肝氣也, 按之至骨者, 腎氣也. 假令下利, 寸口關上尺中, 悉不見脈. 然, 尺中時一小見脈再舉頭者, 腎氣也. 若見損脈來至, 爲

38) 前揭書, pp. 22~23.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321.

40) 王冰, 補注黃帝內經素問, 前揭書, 1982, p. 765.

41) 張機,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p. 64~66.

難治.⁴²⁾

일반적으로 『傷寒論』 중의 「平脈法」, 「辨脈法」, 「傷寒例」篇은 『傷寒論』의 원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晉代 太醫令 王叔和는 『脈經』에서 『傷寒論·平脈法』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張仲景論脈」이라고 명칭하였기 때문에, 「平脈法」篇이 『傷寒論』의 문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傷寒論』에서 인용한 氣口診脈法 중 寸關尺法은 현재 통행본 『難經』의 原文과 동일하지 않지만, 寸關尺의 定位에는 차이가 없으며⁴³⁾, 輕重法은 현재 통행본 『難經』의 原文을 인용하면서, 이를 寸關尺과 實際病證과 연계시켜 설명하였다. 그리고 「六經病脈證并治」篇에서는 六經病證의 脈象을 寸關尺으로 설명하고 있다.

『傷寒論』의 寸關尺法을 살펴보면, 三部를 寸關尺이라 하고 『內經』이나 『難經』에서와 같이 九候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寸關尺을 左手와 右手(右寸, 左尺등)로 나누어 설명한 문장이 없다. 六經病脈을 설명한 편에서의 寸關尺의 구분은, 『難經』에서와 같이 寸脈을 陽脈, 尺脈을 陰脈이라 하였으며, 寸脈에서는 氣, 衛氣, 陽의 상태를 알 수 있고 尺脈에서는 血, 營氣, 陰의 상태를 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寸脈이 微하면 陽不足으로 陰氣上入陽中하여 瀰漸惡寒하

고, 尺脈이 弱하면 陰不足으로 陽氣下陷陰中하여 發熱하게 된다.”⁴⁴⁾고 하였다.

(2) 足陽明趺陽脈診法

『傷寒論·辨脈法』: 趺陽脈遲而緩, 胃氣如經也. 趺陽脈浮而數, 浮則傷胃, 數則動脾.⁴⁵⁾

○ 趺陽脈浮, 浮則爲虛, 浮虛相搏, 故令氣餒, 言胃氣虛竭也. 脈滑則爲噦, 此爲醫咎, 責虛取實守空, 迫血脈浮, 鼻中燥者, 必衄也.⁴⁶⁾

『傷寒論·平脈法』: 趺陽脈滑而緊, 滑者胃氣實, 緊者脾氣強, 持實擊強, 痛還自傷, 以手把刀, 坐作瘡也.⁴⁷⁾

○ 趺陽脈伏而澹, 伏則吐逆, 水穀不化, 澹則食不得入, 名曰關格.⁴⁸⁾

○ 趺陽脈緊而浮, 浮爲氣, 緊爲寒, 浮爲腹滿, 緊爲絞痛, 浮緊相搏, 腸鳴而轉轉, 即氣動膈氣乃下, 少陰脈不出, 其陰腫大而虛也.⁴⁹⁾

○ 趺陽脈沈而數, 沈爲實, 數消穀, 緊者病難治.⁵⁰⁾

○ 趺陽脈浮而芤, 浮者衛氣衰, 芤者榮其傷, 其身體瘦, 肌肉甲錯. 浮芤相搏, 宗氣衰微, 四屬斷絕.⁵¹⁾

○ 趺陽脈微而緊, 緊爲寒, 微則爲虛, 微緊相搏, 則爲短氣.⁵²⁾

○ 趺陽脈不出, 脾不上下, 身冷膚硬.⁵³⁾

42) 上掲書, pp. 70~71.

43)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160. “『難經』問世後, 後漢張仲景撰『傷寒雜病論』時, 曾作爲古訓參考書, 稱爲『八十一難』, 考『傷寒論』的「平脈法」, 「傷寒例」所引『難經』文字, 與現存通行本『難經』頗有出入. 說明當時『難經』, 古傳本已非一種.”

44) 張機, 仲景全書, 前掲書, p. 45. “寸口脈微, 名曰陽不足, 陰氣上入陽中, 則瀰漸惡寒也. … 尺脈弱, 名曰陰不足, 陽氣下陷陰中, 則發熱也.”

45) 上掲書, p. 53.

46) 上掲書, p. 58.

47) 上掲書, p. 79.

48) 上掲書, p. 79.

49) 上掲書, p. 81.

50) 上掲書, p. 82.

51) 上掲書, p. 83.

52) 上掲書, p. 84.

『傷寒論·辨陽明脈證并治』：趺陽脈浮而濇，浮則胃氣強，濇則小便數，浮濇相搏，大便則難，其脾爲約，麻仁丸主之。⁵⁴⁾

趺陽脈은脾胃之氣의 상태를 위주로 살피는 診脈法으로 遲而緩한 것이 正常인데, 肥人은 脈이 沈한 것이 正常이고 瘦人은 浮한 것이 正常이다.⁵⁵⁾

『傷寒論』經文을 참고로 하여 趺陽脈을 陰陽으로 나누면 大浮數動滑은 陽脈으로 邪氣가 表에 있고 沈濇弱弦微는 陰脈으로 邪氣가 裡에 있다.⁵⁶⁾

그리고 趺陽脈을 진찰하여 병세의 위급함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謔言, 妄語하면서 脈沈細者는 死한다는 것이다. 病을 表裡로 나누어 表에 있으면 可治나 裡로入하면 死한다. 즉 陽病에 陰脈이 나타나면 邪氣가 表로부터 裡로入한 것으로 正氣가 虛하고 邪氣가 勝하는 것이다. 또 陰病에서 陽脈이 나타나면 邪氣가 表로 나가는 것이므로 汗하면 愈한다. 예를 들면 厥陰中風에서 脈이 微浮하면 나으려는 것이고 不浮하면 아직 낫지 않는 것이다.⁵⁷⁾

(3) 足少陰太谿脈診法

『傷寒論·平脈法』：少陰脈弱而濇，弱者微煩，濇者厥逆。⁵⁸⁾

『傷寒論·平脈法』：少陰脈不至，腎氣微，少精血，奔氣促迫，上入胸膈，宗氣反聚，血結心下，

陽氣退下，熱歸陰股，與陰相動，令身不仁，此爲尸厥，當刺期門，巨關。⁵⁹⁾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少陰脈浮而弱，弱則血不足，浮則爲風，風血相搏，即疼痛如掣。⁶⁰⁾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第十四』：少陰脈緊而沈，緊則爲痛，沈則爲水，小便即難。⁶¹⁾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第十四』：少陰脈細，男子則小便不利，婦女則經水不通。⁶²⁾

『金匱要略·婦女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少陰脈滑而數者，陰中即生瘡，陰中蝕瘡爛者，狼牙湯洗之。⁶³⁾

足少陰太谿脈診脈法은 足少陰腎脈의 太谿穴處를 按之하여 腎氣의 盛衰를 살피는 脈法이다.

예를 들면, “太谿脈이 細하게 되면 精血이 虛少해지고 女子는 經水가 不通하게 되는데, 腎虛하여 氣化하지 못하게 되므로 小便이 不利하게 되며, 太谿脈이 緊沈하면, 腎陽이 不足하여 寒이 안에서 생기게 되는데, 陽氣가 虛하여 퍼지지 못하게 되므로 全身의 關節이 아프게 되고, 陽虛하여 氣化하지 못하므로 小便이 難하게 된다. 그리고 太谿脈이 滑數하면, 濕熱이 下焦에 머물게 되는데, 濕熱이 前陰에 모여 鬱積하여 腐蝕하게 되므로 瘡이 된다.”고 하였다.

53) 前掲書, p. 84.

54) 上掲書, p. 244.

55) 金泰熙,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研究, 博士學位, 서울, 慶熙大學校, 1987, p. 26.

56) 上掲書, p. 26.

57) 上掲書, p. 26.

58) 張機, 仲景全書, 前掲書, p. 84.

59) 上掲書, p. 85.

60) 張機,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 13.

61) 前掲書, p. 38.

62) 上掲書, p. 39.

63) 上掲書, p. 62.

이 이외에도 여러 診脈法이 기재되어 있는데, 寸口와 趺陽脈을 합診하여 五藏의 氣를 진단하는 寸口趺陽脈診法⁶⁴⁾, 趺陽脈과 太谿脈을 서로 참고하여 脾胃와 腎氣의 虛實을 살피는 趺陽太谿脈診法⁶⁵⁾, 寸과 尺을 비교하여 살피는 寸部尺部診脈法⁶⁶⁾, 尺脈과 趺陽脈을 비교해서 脾胃와 腎의 질병관계를 진단하는 尺脈趺陽脈診脈法⁶⁷⁾, 中焦脾胃의 氣를 살피는 關脈法⁶⁸⁾등이 있다.

4) 『脈經』의 診脈法

『脈經』의 診脈法은 『內經』의 四時脈을 설명한 편과 맥동수로써 五藏의 診脈部位를 설명한 篇을 인용하였으며, 『難經』의 寸關尺法과 輕重法 및 『傷寒論』의 寸關尺法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이외에 당시 제가들의 저서를 인용하였는데, 이 중의 저서로 생각되는 『脈法讚』에서는 『內經』, 『難經』, 『傷寒論』과는 달리 처

음으로 寸關尺을 左手와 右手로 나누어 五藏六府의 診脈部位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脈經』의 氣口診脈法중 三部九候는 寸關尺三部와 浮中沈의 三候를 말하며 脈의 근본은 腎間動氣⁶⁹⁾ 하여 『難經』의 理論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脈經』에서는 “寸口脈을 左右로 나누어 左右의 關前一分은 人命의 主가 되며 左側은 人迎이요, 右側은 氣口이다.”⁷⁰⁾라 하여, 寸口脈을 左人迎 右氣口로 처음 구분하여 命名하였으나, 東洋醫學의 宗祖가 되는 『內經』에서 人迎의 의미를 왜곡한 죄가 또한 크니, 이는 의학발전에 있어서 沮害의인 一面이라고 할 수 있다.

『脈經』은 關을 分界線으로 인식한 『難經』과는 달리 關의 위치 및 길이를 실제에 맞게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卷·分別三關境界脈候所主第三」：從魚際至高骨，却行一寸，其中名曰寸口。從寸至尺，名曰尺澤，故曰尺寸。寸後尺前名曰關，陽出陰入，以關爲界。陽出三分，陰入三分，故曰三陰三陽。陽生于尺動于寸，陰生于寸動于尺。寸主射上焦，出頭及皮毛竟手。關主射中焦，腹及腰。尺主射下焦，少腹至足。⁷¹⁾

여기에서 寸關尺의 部位와 各各의 차지하는 길이를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高骨處가 關이고 寸으로 三分出, 尺으로 三分入하여 六分의 부위를 차지하므로, 寸部六

64) 上揭書, p. 41. “師曰：寸口脈遲而澁，遲則爲寒，澁爲血不足。趺陽脈微而遲，微則爲氣，遲則爲寒。寒氣不足，則手足逆冷；手足逆冷則榮衛不利；榮衛不利，則腹滿腸鳴相逐；氣轉膀胱，榮衛俱勞；陽氣不通即身冷，陰氣不通即骨疼；陽前通則惡寒，陰前通則痺不仁；陰陽相得，其氣乃行，大氣一轉，其氣乃散；實則失氣，虛則遺尿，名曰氣分。”

65) 張機, 仲景全書, 前揭書, p. 52. “趺陽脈浮而滿，少陰脈如經也，病在脾。…今趺陽脈浮而滿，故知脾氣不足，胃氣虛也。”

66) 上揭書, p. 45. “問曰：病有洒淅惡寒，而復發熱者何？答曰：陰脈不足，陽往從之，陽脈不足，陰往乘之。曰：何謂陽不足？答曰：假令寸口脈微，名曰陽不足，陰氣上入陽中，則洒淅惡寒也。曰：何爲陰不足？答曰：尺脈弱，名曰陰不足，陽氣下陷入陰中，則發熱也。”

67) 張仲景, 金匱要略, 前揭書, p. 42. “尺脈浮則傷腎，趺陽脈緊則傷脾，風寒相搏，食穀即眩，穀氣不消，胃中苦濁，濁氣下流，小便不通，陰被其寒，熱流膀胱，身體盡寒，名曰黃疸”

68) 張機, 仲景全書, 前揭書, pp. 182~183. “太陽病當惡寒，今自汗出，反不惡寒發熱，關上脈細數者，以醫吐之過也。一二日吐之者，腹中飢，口不能食，三四日吐之者，不喜糜粥，欲食冷食，朝食暮吐，以醫吐之所致也，此爲小逆”

69)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144~149 “經言所謂三部者寸關尺也 九候者每部 中有天 有地 有人也 …… 然諸十二經脈者皆係於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腎間動氣也。”

70) 上揭書, pp. 16~17. “關前一分人命之主 左爲人迎 右爲氣口 神門訣斷 兩在關後 人無二脈 病死不愈。”

71) 前揭書, p. 7.

分 關部六分 尺部七分으로 尺寸의 길이가 一寸九分이 되며, 寸關尺이 主하는 人體의 生理, 病理의 반응 부위를 概括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寸關尺의 藏府配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一·兩手六脈所註五藏六府陰陽逆順第七」
：脈法讚云，肝心出左，脾肺出右，腎與命門，俱出尺部。魂魄穀神，皆見寸口。……心部在左手關前寸口是也，即手少陰經也。與手太陰爲表裏，以小腸合爲府。合于上焦，名曰神庭，在龜尾下五分（一作鳩尾）。肝部在左手關上是也，足厥陰經也。與足少陽爲表裏，以膽合爲府。合于中焦，名曰胞門（一作少陽），在太倉左右三寸。腎部在左手關後尺中是也，足少陰經也。與足太陽爲表裏，以膀胱合爲府。合于下焦，在關元左。肺部在右手關前寸口是也，手太陰經也。與手陽明爲表裏，以大腸合爲府。合于上焦，名呼吸之府，在雲門。脾部在右手關上是也，足太陰經也。與足陽明爲表裏，以胃合爲府。合于中焦脾胃之間，名曰章門，在季肋前一寸半。腎部在右手關後尺中是也，足少陰經也。與足太陽爲表裏，以膀胱合爲府。合于下焦，在關元右。左屬腎：右爲子戶，名曰三焦。⁷²⁾

이상에서 肝心은 左에서, 脾肺는 右에서, 腎命門은 尺部에서 候하는데, 心은 左手寸脈에서, 肝은 左手關脈에서, 腎은 左手尺脈에서, 肺는 右手寸脈에서, 脾는 右手關脈에서, 腎은 右手尺脈에서 候한다. 그리고 六府도 寸關尺에서 나타나는 部位가 藏과 表裏關係로 보았으며 左側尺脈은 腎에 속하고, 右側尺脈은 子戶가 된다. 이름하여 三焦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子戶에 대하여 살펴보면, 『難經』에 “左者爲腎，右者爲命門.”⁷³⁾이

라 하였고, 張介賓은 『類經附翼·三焦包絡命門辨』에서 “右爲子戶者，仍是右者爲命門之說.”⁷⁴⁾이라고 하였으니, 子戶는 아마 命門에 해당된다고 보아진다.

총괄하건대 『脈經』은 『難經·十八難』의 六經과 五行子母相生理論에 바탕하여 兩手寸關尺에 藏府를 配屬시키므로써, 診脈法에 있어서 氣口寸關尺의 藏府配屬理論을 확립하여, 後世 診脈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참조)

左手		三部	右手	
藏 (經脈)	府 (經脈)		藏 (經脈)	府 (經脈)
心 (手少陰)	小腸 (手太陽)	寸	肺 (手太陰)	大腸 (手陽明)
肝 (足厥陰)	膽 (足少陽)	關	脾 (足太陰)	胃 (足陽明)
腎 (足少陰)	膀胱 (足太陽)	尺	腎, 命門 (子戶) (足少陰)	膀胱, 三焦 (足太陽)

2. 氣口診脈法の 藏府配屬理論

『難經·二難』에서 처음으로 氣口를 寸關尺으로 三分한 診脈部位를 제시하였고⁷⁵⁾, 나아가 十八難에서 寸關尺 三部에 五行子母相生理論에 근거하여 氣口兩手寸關尺의 藏府配屬理論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로부터 王叔和는 『脈法讚』

74)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2, p. 270.

75) 滑壽, 難經本義, 前掲書, pp. 15~17. “脈有尺寸何謂也, 然尺寸者脈之大要會也, 從關至尺, 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 是寸口內, 陽之所治也. 故分寸爲尺, 分尺爲寸. 故陰得尺內一寸, 陽得寸內九分.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

72) 上掲書, pp. 16~19.

73) 滑壽, 難經本義, 前掲書, p. 82.

을 인용하여 兩手寸關尺의 藏府配屬理論을 처음으로 정립하였고, 이후 唐, 宋, 元, 明, 清代 醫家들 대부분이 兩手寸關尺診法理論을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法과 『脈經』을 결부시켜 해석하느로서, 兩手寸關尺의 藏府配屬理論은 더욱 근거를 확립하여 정착화 되었다. 단지 이로 말미암아 寸關尺診法の 연원과 藏府配屬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氣口診脈法을, 兩手寸關尺理論에 반대하고 輕重法으로 보아야한다는 醫家가 나왔는데, 宋代 王宗正, 朝鮮末 李圭峻등이 이에 속한다.

본 단에서는 兩手寸關尺法으로 본 醫家와 輕重法으로 본 醫家들이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法과 『難經』의 氣口脈藏府配屬理論을 어떻게 결부시켜 자기들의 주장을 合理化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1) 寸關尺法の 藏府配屬理論

(1) 『難經』의 寸關尺法과 『內經』 및 『脈經』의 聯關性

위에서 언급했듯이, 寸關尺의 위치는 二難에서 “脈有尺寸何謂也, 然尺寸者脈之大要會也, 從關至尺, 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 是寸口內, 陽之所治也. 故分寸爲尺, 分尺爲寸. 故陰得尺內一寸, 陽得寸內九分.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⁷⁶⁾라고 하여, 關에서 尺澤穴側으로一寸이 되는 부위를 尺, 關에서 魚際側으로九분이 되는 부위를 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十八難에서는 “脈有三部, 部有四經, 手有太陰陽明, 足有太陽少陰, 爲上下部何謂也? 然, 手太陰陽明金也, 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少陽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

下, 故爲上部. 手心主少陽火生足太陰陽明土, 土主中宮, 故在中部也. 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⁷⁷⁾라고 하여, 一部四經을 근거로 하여 十二經을三部로 나누어 배속시켰으며, 寸關尺을 上中下로 구분하여 六經을 배치시켰다. 이를 살펴보면, 手太陰少陰火는 上部, 足少陰太陽水는 下部, 足太陰陽明土는 中部에 속하며, ‘手有太陰陽明, 足有太陽少陰, 爲上下部何謂也?’라고 한 물음에, 足有太陽少陰은 水에 속하여 下部에 配屬되므로, 手太陰陽明은 자연히 上部에 配屬됨을 알 수 있다. 手心主少陽火와 足厥陰少陽木의 위치를 살펴보면, 手心主少陽火는 中部인 足太陰陽明土를 生한다고 하였으므로, 手心主少陽火는 中部에 해당될 수 없고 上部에 해당되거나 下部에 해당된다. 手心主少陽火를 上部로 가정한다면, 上部에는 部有六經이 되어 본문의 ‘部有四經’이라고 한 말과 또한 어긋난다. 따라서 手心主少陽火는 下部에 배속될 수 밖에 없으며, 足厥陰少陽木은 中部에 配屬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左手와 右手로서 六經의 配屬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지 五行子母相生이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醫家들이 十八難을 兩手寸關尺法으로 해석하였다. 이 醫家들 가운데서도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法을 근거한 醫家들과 『脈經』을 근거로 한 醫家들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하여 역대 醫家들의 주석을 통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唐代 楊玄操는 “經에서 말한 ‘脈有三部 部有四經’은 兩手を 통틀어 말한 것이다. 兩手に 各各三部가 있고, 部に 各各二經이 있으니, 兩手上部를 합하면 四經이며, 中下二部도 이와 같다.”⁷⁸⁾라고

77) 上掲書, p. 50.

78) 王九思 等集注, 難經集注, 台北, 中華書局, 1985, p. 111. “經言脈有三部, 部有四經者, 謂總兩手而言之也. 兩手各有三部, 部各有二經, 兩手上部合四也. 中

76) 前掲書, pp. 15~17.

하였다.

宋代 丁德用은 “무릇 脈의 三部九候는 寸關尺이고, 兩手を 합하여 말하면 바로 六部다. 每部에 各 二經이 있으니 六部에 合하면 十二經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四經은 手太陰陽明과 足太陽少陰이니, 이 四經은 水火之性을 法하므로 各 綱紀가 있어서 上下로 變通하지 못하며, 나머지 八經은 手는 足を 생하고 足은 手를 생하니, 그러므로 經에 ‘部有四經’이라고 하였다. 右手의 寸口는 肺와 大腸이 應하고 金은 左尺水를 생하니 足太陽少陰의 性情은 潤下이므로 手에서 위로 갈 수가 없으며 左足厥陰少陽木을 생한다. 이 二部는 모두 足의 經紀이므로 下部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左尺水는 左關木을 생한다. 手太陰少陰은 左寸君火에 應하며 火는 위로 炎上하므로 아래로는 足を 생하지 못하고 手心主少陽火를 생하니 左寸君火는 右尺相火를 생하는 것이요, 이것이 相火가 灰火와 相應하는 것이다. 中部는 右關이니 寸 金에서 생한다. 이것은 모두 五行이 서로 生養하는 것을 말하니, 右寸金이 左尺水를 생하고, 水는 左關木을 생하고, 木은 左寸君火를 생하고, 君火는 右尺相火를 생하고 相火는 右關土를 생한 연후에 右寸金을 생한다. 그러므로 子母가 서로 生養하는 것이다.”⁷⁹⁾라고 하였다.

下二部, 亦復如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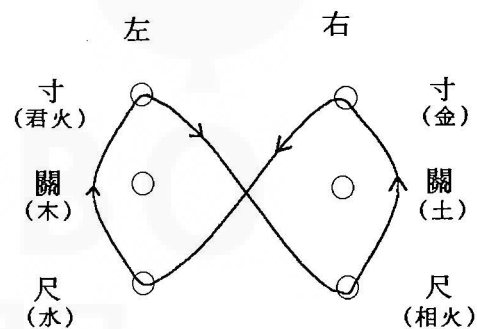
79) 上掲書, pp. 111~114. “夫脈有三部九候者寸關尺也. 若合兩手言之, 卽六部也. 每部之各有二經, 六部之內合爲十二經. 今此云四經者是謂手太陰少陰與足太陽少陰, 此四經者法水火之性, 各有綱紀而不能變通上下, 餘八經在手生足在足生手, 所以經言部有四也. 是右手寸口肺與大腸應, 金生左尺水也. 足太陽少陰水其性潤下, 故不能上生於手而生左足厥陰少陽木. 此二部皆是足之經紀, 所以言在下部也. 是左尺水生左關木. 手太陰少陰應左寸君火, 火上炎上不能下, 生足而生手心主少陽火, 是生右尺相火也, 是相火應其灰火也. 中部者右關也, 生于寸金也. 言此皆五行更相生養者, 是謂右寸金生左尺水, 水生左關木, 木生左寸君火, 君火生右尺上火, 相火生右

宋代 虞庶는 “足厥陰과 足太陰은 어찌하여 左右 兩手關部중에 위치하는가? 太陰脾脈은 中主에 거하므로 右手關上에 있고 右足厥陰은 木이며 木의 根은 땅에서 생하고 枝葉은 하늘로 뻗어 나가므로, 陰陽이 함께 있는 것이니 左中部에 위치한다.”⁸⁰⁾라고 하여, 肝과 脾를 關部에 배속시킨 까닭을 해설하였다.

唐代 楊玄操, 宋代 丁德用, 虞庶등의 論說을 종합하여 五行子母相生圖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참조)

이상 唐代 楊玄操, 宋代 丁德用, 虞庶등은 이전의 楊上善 『太素』 및 王冰 『補註黃帝內經素問』 등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脈法

【그림 2】



을 氣口診脈法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脈經』의 兩手寸關尺法에 근거하여 十八難의 五行子母相生을 左右手 寸關尺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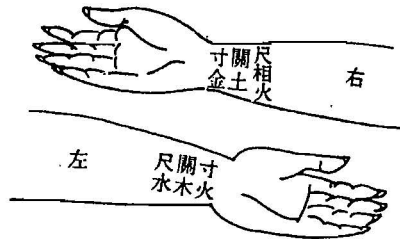
二難, 十八難의 寸關尺 氣口脈에 대해 『素問·脈要精微論』에 근거한 醫家들은 다음과 같다.

明代 滑壽는 ‘部有四經’에 대하여 左右手에서

關土, 而後生右寸金. 故子母更相生養者也.”

80) 前掲書, pp. 114. “何以居於左右兩手關部中胃脾, 太陰脾脈居於中主, 乃在右手關上也. 右足厥陰木, 木者, 根生於地, 枝葉長於天, 亦陰陽共焉. 故亦在左中部也.”

五行子母相生圖



右寸手太陽陽明金，生左
尺足太陽少陰水。太陽少
陰水，生左關足厥陰少陽
木，厥陰少陽木，生左寸
手太陽少陰火。太陽少陰
火，通右尺手心主少陽火。
手心主少陽火，生右關足
太陰陽明土。足太陰陽明
土，復生右寸手太陽陽明
金。此皆五行子母更相生
養者也。

二經을 살피는 것은 唐宋代 醫家들의 관점과 같지
만,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이 兩
手寸關尺으로 나누어 診脈하는 효시가 되는 문헌
이라고 처음으로提起하였다.⁸¹⁾ 이후 明代 馬蒔,
虞搏, 張介賓, 清代 張志聰, 徐大椿 등이 모두 氣口
寸關尺法으로 해석한 것은 滑壽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馬蒔는 “尺內는 左右尺部이며, 尺內는 季脅과
서로 가까이 있으며, 季脅은 늑골이 끝나는 곳으
로 穴名은 章門이다. 尺之外側에서 腎을 살피고,
尺之內側에서는 腹中을 살피는데 腹中은 小腹中

이다. 附而上之는 곧 關脈을 뜻하므로, 左關의 外
에서 肝을 살피고 左關의 內에서 鬲을 살핀다. 그
리고 右關의 外에서 胃를 살피고 右關의 內에서
脾를 살핀다. 또 附而上之는 寸脈을 뜻하므로, 右
寸之外에서 肺를 살피고 右寸之內에서 胸中을 살
피며, 左寸之外에서 心을 살피고 左寸之內에서 膻
中을 살핀다.”⁸²⁾라고 하였다.

虞搏은 『醫學正傳』에서 “『內經』에서 말하
는 寸口를 알지 못하는 者가 자못 많으니, 모두 關
과 尺을 兼하여 말한 것으로, 대개 古人은 寸口로
써 六脈의 總括의인 이름으로 사용하였을 따름이
다. 그렇지 않다면 『內經』에서 어떻게 ‘寸口之脈
中手短者曰頭痛, 寸口脈中手長者曰足脛痛, 寸口
脈中手促上擊者肩背痛.’이라고 하였겠는가? 이와
같은 경우는 다 서술하기조차 힘들다. 先哲이 注
하기를, ‘中手는 醫者の 中指가 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病者의 關脈이 아니겠는가? 무릇 越人의
『難經』은 『內經』을 근본으로 지어진 것이므
로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이다. 지금의 注하는 者는
모두 자기의 임의대로 妄靈되이 解釋하므로 해서
『內經』의 要旨와는 부합되지 않는다.”⁸³⁾라고 하

81) 滑壽, 難經本義(彙考), 台北, 臺灣大同書局, 1979, p. 10. “謝氏謂「難經王宗定註義圖解」, 大概以診脈之法, 以心肺俱浮, 肝腎俱沉, 脾在中州爲正, 至於它分兩手部位, 及藏府脈並時分見於尺寸, 皆以爲王氏「脈經」之非, 殊不知脈之所以分兩手者出於「素問·脈要精微論」, 其文甚明. 越人復推明之於十難中, 言一脈變爲十, 以五藏六府相配而言, 非始於叔和也.”

82) 馬蒔, 素問註證發微, 서울, 大星出版社, 1994, p. 119.

“此言藏府之脈, 見之於各部者如此. 尺內者左右尺部也, 尺內與季脅相近. 季脅者肋骨盡處也, 其穴名章門. 尺之外側所以候腎, 尺之內側所以候腹中, 腹中者小腹中也. 附而上之, 乃關脈也. 左關之外, 所以候肝, 左關之內, 所以候鬲. 右關之外, 所以候胃, 右關之內, 所以候脾. 右附而上之, 卽寸脈也. 右寸之外, 所以候肺, 右寸之內, 所以候胸中, 左寸之外, 所以候心, 左寸之內, 所以候膻中.”

83)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韓社, 1986, p. 11. “蓋峰熊氏注爲右寸, 謂右寸之屬肺也. 四明張氏注爲兩寸, 謂脈會太淵穴也. 二說不同, 其孰非而孰是歟? 請明以告我. …… 殊不知「內經」言寸口者頗多, 悉兼關尺而言也, 大概古人以寸口爲六脈之總名耳. 不然, 「內經」何以言寸口之脈中手短者曰頭痛, 寸口脈中手長者曰足脛痛, 寸口脈中手促上擊者肩背痛, 若此之類, 莫能盡述. 先哲

여, 經文의 '寸口脈中手'를 寸關尺 가운데 關脈으로 보았으며, 『內經』에서 尺寸이나 혹은 寸口는 六脈之總名으로서 寸關尺을 겸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尺內에서 關前을 寸이라 하고, 關後를 尺이라고 하기 때문에 尺內라고 한다. 季脅은 小肋인데 脇下兩傍에 위치하여 腎과 가까이 있으므로, 季脇의 아래부터는 모두 尺內가 主한다. 尺外는 尺脈의 前半部이며, 尺裏는 尺脈의 後半部이다. 前에서는 陽을 살피고, 後에서는 陰을 살피는데, 人身에 있어서 背는 陽이 되는데, 腎은 背에 가까이 있으므로, 外에서 腎을 살피며, 腹은 陰이 되므로 裏에서 腹을 살핀다. 이른바 腹이라고 한 것은 무릇 大腸, 小腸, 膀胱, 命門이 모두 腹中에 있기 때문이다. 諸部 모두 左右를 말하였는데, 尺만 유독 左右로 나누지 않은 것은 兩尺 모두가 腎을 主하기 때문이다. '中附上'은 附尺의 上으로 中에 위치하는 關脈을 말한다. 左外는 左關의 前半部이고, 內는 左關의 後半部를 말하는데, 나머지도 이와 같다. 肝은 陰中之陽藏으로서 역시 背에 가까이 붙어 있으므로, 外에서 肝을 살피고, 內에서 鬲을 살핀다. 鬲을 거론한다면, 中焦의 膈膜으로 膽府가 모두 그 가운데 있다. 右關의 前에서 胃를 살피고, 右關의 後에서 脾를 살피는데, 脾胃 모두는 中州之官이다. 表裏로 말하면, 胃는 陽이며 脾는 陰이므로, 外에서 胃를 살피고, 內에서 脾를 살핀다. '上附上'은 上之上인 寸脈을 말한다. 五藏 위치 중, 肺가 가장 위에 있으므로, 右寸의 前에서 肺를 살피고, 右寸의 後에서 胸中을 살피는데, 胸中은 膈膜之上을 모두 뜻한다. 心肺 모두는 鬲上에 있기 때문에, 左寸之前에서 心을 살피고, 左寸

의 後에서 膻中을 살핀다. 膻中은 兩乳之間 부위이며, 氣海라고 하는데, 心包가 居하는 곳이다. …… 내가 보건대, 本論의 五藏이 應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火는 南方을 治하므로 心은 左寸에 나타나고, 木은 東方을 治하므로 肝은 左關에 나타나며, 金은 西方을 治하므로 肺는 右寸에 나타나고, 土는 中央을 治하므로 西南에 위치하므로, 脾胃는 右關에 나타나니, 이것이 河圖五行의 차례이다."⁸⁴⁾라고 하였다.

張志聰은 "天은 陽, 地는 陰이며, 東南方은 陽, 西北方은 陰이다. 聖人이 南을 향하여 서면, 左는 陽이 되고, 右는 陰이 된다. 天一이 水를 生하면, 水는 木을 生하고, 木은 火를 生하므로, 心肝은 左에 위치한다. 地二가 火를 生하면, 火는 土를 生하고, 土는 金을 生하므로, 脾肺는 右에 위치한다."⁸⁵⁾라고 하였다.

84) 張介賓, 類經, 前揭書, pp. 97~98. "內者, 關前曰寸, 關後曰尺, 故曰尺內. 季脅小肋也. 在脇下兩傍爲腎所近, 故自季脇之下, 皆尺內主之. 尺外, 尺脈前半部也, 尺裏, 尺脈後半部也, 前以候陽, 後以候陰. 人身以背爲陽, 腎附於背, 故外以候腎, 腹爲陰, 故裏候腹, 所謂腹者, 凡大小腸膀胱命門皆在其中矣. 諸部皆言左右, 以此獨不分者, 以兩尺皆主乎腎也. 中附上, 言附尺之上, 而居乎中者, 卽關脈也, 左外, 言左關之前半部, 內言左關之後半部, 餘放此. 肝爲陰中之陽藏, 而亦附近於背, 故外以候肝, 內以候鬲, 舉鬲而言, 則中焦之膈膜, 膽府皆在其中矣. 右關之前所以候胃, 右關之後所以候脾, 脾胃皆中州之官, 而表裏言之, 則胃爲陽, 脾爲陰, 故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言上而又上, 則寸脈也, 五藏之位, 惟肺最高, 故右寸之前以候肺, 右寸之後以候胸中, 胸中者膈膜之上皆是也, 心肺皆居鬲上, 故左寸之, 前以候心, 左寸之後以候膻中, 膻中者兩乳之間, 謂之氣海, 當心包所居之也. …… 愚按本論五藏應見之位, 如火王於南故心見左寸, 木王於東故肝見左關, 金王於西故肺見右寸, 土王於中而寄位西南, 故脾胃見右關, 此河圖五行之序也."

85) 張志聰, 素問集注, 前揭書, p. 143. "問曰, 如經言心肝居左, 脾肺居右, 是藏氣之出于左右與? 抑藏體之偏與? 天爲陽, 地爲陰. 東南爲陽, 西北爲陰. 聖人南面爲立, 左爲陽, 右爲陰.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是以心肝

注謂中手爲醫者之中指也, 然則非病者之關脈乎. 夫越人之「難經」, 因「內經」而作, 故有是語. 今之注者, 皆以己意妄釋, 故與經旨不合. 學者宜再思之."

徐大椿은 『難經』의 三部九候法을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에 근거한 診脈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內經』에서는 寸關尺을 五藏에 配屬시켰으나 『難經』에서는 寸關尺을 經絡에 배속시켰는데, 八難의 '腎爲三焦之原'과 三十九難의 '命門氣與腎通'을 참고로 할 때, 右尺心主少陽에 腎, 命門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⁸⁶⁾

이상에서 唐, 宋代 醫家들은 兩手寸關尺法의 근원을 『脈經』에 근거하여 해석하였고, 元代 滑壽가 氣口寸關尺理論을 『內經』이 효시라고 한 이후, 明, 清代의 대부분의 醫家들은 『內經』에 근거하여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諸家の 寸關尺 藏府配屬理論

『脈經』에서 氣口寸關尺診脈法の 藏府配屬을 확립한 이후, 『素問·脈要精微論』이 兩手寸關尺의 효시가 된다고 한 說과 十八難의 '手心主少陽在下部', 三十六難의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그

리고 三十九難의 '(命門)其氣與腎通'한다는 理論 등이 서로 錯綜 出入하여 尺部の 五藏配屬 및 大小腸의 寸關尺配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尺部の 五藏配屬에 있어서, 醫家들의 견해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王叔和는 『脈經』에서 "腎與命門, 俱出尺部... 左屬腎, 右爲子戶."라고 하여, 左側은 腎에 속하고 右側은 命門(子戶)이 된다고 하였다. 이후 高陽生은 三十六難에서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이라고 한 관점에서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命"⁸⁷⁾이라고 하여, 左尺을 腎, 右尺을 命門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陳言⁸⁸⁾, 劉完素⁸⁹⁾, 王綸⁹⁰⁾, 薛己⁹¹⁾, 李梴⁹²⁾ 등이 모두 王叔和의 本說을 따랐다.

崔嘉彦은 『四言舉要』에서 '腎與命門, 居兩尺部... 命爲相火, 左寸同斷.'이라고 하여 兩尺部 모두가 命門의 診脈部位라고 하였으며, 『脈訣』의 命診脈部位를 左寸에 配屬시켜 『難經』의 命門과 달리 하였다.⁹³⁾

居左也。地二生火，火生土，土生金，是以脾肺居右也。此先天之五行本于陰陽水火，分而上生，非藏體之位也。此先天之五行，本于陰陽，水火分而相生，非藏體之謂也。又心主脈，肝主血，血脈生偶水精，是以左手三部俱主血。肺主周身之氣，脾主元真之氣，氣生于火，是以右手三部皆主氣。此皆陰陽互換之妙，善診者不可不知。”

86) 徐大椿, 徐靈胎醫書全集(卷一, 難經經釋), 台北, 五洲出版社, 1991, p. 15. “『素問·脈要精微論』, 尺內兩傍, 則季脅也。尺外以候腎脈, 尺裏以候腹中, 附上, 左外以候肝, 內候鬲,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膻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其診法與『脈經』, 『難經』俱互異, 此篇所論六經部位, 乃『素問·血氣形志論』所謂足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足陰陽也。手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手之陰陽也。以此爲據, 而後世『脈經』, 『脈訣』因之, 但『素問』止言經絡表裏如此, 並不指爲診脈之位, 今乃以右尺診心主少陽, 及第八難以腎爲三焦之原, 三十九難又謂命門氣與腎通, 皆互相證明也。”

87) 張世賢, 校正圖註王叔和脈訣, 台南, 大孚書局, 1977, pp. 6~7.

88)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 3. “古人謂左腎爲腎藏, 其府膀胱, 右腎爲命門, 其府三焦.” p. 18. “右腎在右手尺中, 屬手厥陰經, 與三焦手少陽經合.”

89) 劉完素,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韓社, 1976, p. 278. “『難經』止言, 右腎爲命門,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豈相反也? 然右腎命門小心爲手厥陰包絡之藏, 故與手少陽三焦合爲表裏, 神脈同出, 見手右尺也.”

90) 王綸撰, 薛己注, 名醫雜著, 香港,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 17. “故丹溪先生發明補陰之說, 謂專補左尺腎水. 古方滋補藥皆兼右尺相火.”

91) 上揭書, pp. 23~24. “若左尺脈虛弱而細數者, 是左腎陰不足也. 用六味丸. 右尺之脈或沈細而欲絕者, 是命門相火不足也, 用八味丸.”

92)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5, p. 383.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命.”

93) 李時珍, 本草綱目(脈訣考證), 香港, 商務印書館, 1930,

楊士瀛은 兩尺部 모두가 命門이라고 하였으며, 『脈訣』의 命診脈部位를 右尺에 配屬시켜 『難經』의 命門과 달리하여 心主包絡이라고 하였다.⁹⁴⁾

滑壽는 三十九難의 '命門與腎脈通'이라고 한 관점에서 "右尺에서는 腎과 命門을 모두 살피고, 左尺에서는 心包를 살핀다."라고 하였다.⁹⁵⁾

戴啓宗은 "命門은 經脈이 없으며 正藏이 아니므로 診脈部位가 없기 때문에, 右尺을 命門의 診脈部位로 볼 수 없다."⁹⁶⁾라고 하였는데, 李中梓⁹⁷⁾,

徐春甫⁹⁸⁾ 등도 이 설을 따랐다.

다음으로 大小腸의 寸關尺配屬에 대한 諸家の 見解의 差異를 살펴보고자 한다.

王叔和는 心과 小腸은 表裡關係이므로 左寸에서 候하며, 肺와 大腸 역시 表裡關係이므로 右寸에서 함께 候한다는 견해이다.⁹⁹⁾ 이 說은 『難經』 三部의 六經配屬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滑壽¹⁰⁰⁾, 李梴¹⁰¹⁾ 등도 이 說을 따랐다.

李時珍, 徐春甫는 "大腸, 小腸, 膀胱 모두는 膽의 下에 속하므로, 마땅히 兩尺의 後半部에서 살펴야 하는데, 左右를 나누어 짚으려면, 小腸은 心을 좇으므로 左尺에, 大腸은 肺를 좇으므로 右尺에, 膀胱과 小腸은 相通하므로, 모두 左尺에서 살

p. 17. "心肝居左, 肺脾居右, 腎與命門, 居兩尺部, …… 浮爲心肺, 沈爲肝腎, 脾爲中洲, …… 命爲相火, 左寸同斷."

崔嘉彦의 『四言舉要』의 단행본이 없는 관계로 李時珍의 『本草綱目』중 「脈訣考證」에 인용된 것을 발췌하였음.

94) 楊士瀛, 仁濟直指附遺方論,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p. 1614~1615. "右尺之命脈即心主包絡者是, 三焦爲府, 取象於相火, 相行真心君火之命, 宣流氣血, 一名膻中, 上朝腦戶, 下接元陽, 精氣與子午相爲流通, 蓋得陰中養性之候. …… 右夫右腎之命門, 謂腎有兩物者是, 左爲腎以藏志, 右爲命門以藏精, 腎主納氣收血化精, 而運入命門, 長養骨髓, 故男則化以爲精, 女則盈而月事, 兩者俱屬水, 而氣貫相通. 「難經」有曰, 命門者, 精神之所舍, 元氣之所繫,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者, 此之謂也. …… 腎合膀胱, 左尺之脈純乎水, 命合三焦, 右尺之脈純乎火, 水火之義不待辯而自明矣. 然則右手尺部其經手厥陰, 其藏心包絡, 其府三焦, 其名命脈, 決非命門."

95) 王綸撰, 薛己注, 名醫雜著(診家樞要), 前掲書, p. 115. "左尺腎膀胱脈所出, 命門與腎脈通. …… 右尺三焦心包絡脈所出."

96) 戴啓宗, 脈訣刊誤(中國醫學大系),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 865. "「內經」腎未嘗分爲兩藏, 來嘗有命門也, 惟銅人有命門穴在十四椎下, 「靈樞」言兩目爲命門, 則無動脈何以爲診, 又非正藏何以列部, 腎有兩枚均爲腎, 尺內以候腎, 同列左右尺, 斯黃岐之正論."

97) 李中梓, 醫宗必讀, 前掲書, pp. 44~45. "心肝脾肺俱有各一, 惟腎一藏而分兩尺之候者, 爲腎有兩枚, 形如豇豆, 分列右腰脊之左右也. 「刊誤」以兩尺候腎, 深合經旨, 「難經」, 「脈訣」乃以左尺候腎水, 右尺候命門相

火誤矣. 故「明堂」, 「銅人」等經, 命門一穴在膻腧第十四椎陷中兩腎之間, 腎雖水藏而相火寓也. 蓋一陽居二陰之間, 所謂成乎坎也. 獨不思脈之應于指下者, 爲有經絡順經, 朝右寸口, 詳考「內經」并無命門之經絡也, 既無經絡, 何以應診而可列之右尺乎? 但當以左腎爲水, 右腎爲火, 不可以左爲腎右爲命門也."

98) 徐春甫, 古今醫統秘方大全, 台北, 新文豐出版社, 1982, p. 512. "「內經」以心配臍中, 以肺配胸中, 以肝配膈, 以脾配胃, 兩尺外以候腎, 內以候腹中. 大腸小腸膀胱三焦盡屬腹中, 下部之位. 故三部寸關尺之配診, 則各因其藏府之位焉, 何常泥于經絡而候之也? 況且命門并無經藏, 三焦亦非一府, 而何可以候之右尺也! 原夫大小腸居小腹之下部, 今而逆候寸口之上部, 惡乎? 宣乎?"

99)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前掲書, p. 18. "心部在左手關前寸口是也, 即手少陰經也. 與手太陰爲表裏, 以小腸合爲府. 合于上焦, 名曰神庭, 在龜尾下五分(一作鳩尾). …… 肺部在右手關前寸口是也, 手太陰經也. 與手陽明爲表裏, 以大腸合爲府. 合于上焦, 名呼吸之府, 在雲門."

100) 王綸撰, 薛己注, 名醫雜著(診家樞要), 前掲書, p. 115. "左手寸口心小腸脈所出, … 右寸肺大腸脈所出."

101) 李梴, 編註醫學入門, 前掲書, p. 383.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心, 心與小腸居左寸, 肝膽同歸左關定, 腎脈元在尺中, 膀胱是府常相應, 肺應大腸居右寸, 脾胃脈從右關認, 心包右尺配三焦, 此爲初學入門訣."

된다.”¹⁰²⁾고 하여,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法에 근거하여 小腸은 左尺에 大腸은 右尺에 配屬시켰는데, 李中梓¹⁰³⁾, 吳謙¹⁰⁴⁾ 등은 이 說을 따랐다.

張介賓은 “兩尺 가운데 左는 水의 診脈部位로서, 眞陰이 거처하는 곳이며, 右는 火의 診脈部位로서, 元陽의 본이다. 小腸은 火에 속하는데, 火는 火의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마땅히 右尺에 配屬되어야 하며, 大腸은 金에 속하는데, 水를 좇으므로, 마땅히 左尺에 配屬되어야 한다.”¹⁰⁵⁾고 하여 左腎水右命門의 관점에서 大腸은 左尺, 小腸은 右尺에 配屬시켰는데, 喻昌¹⁰⁶⁾은 이 說을 따랐다.

이상 諸家の 견해를 총괄하건대, 尺과 五藏配屬에 대해서는, 『內經』에 근거하여 命門의 診脈部位가 없다는 說, 三十六難에 근거하여 左는 腎, 右는 命門이라는 說, 三十九難에 근거하여 左尺은 心包, 右尺은 腎과 命門이라는 說, 兩尺 모두 命門이라는 說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大腸小腸의 寸關尺配屬에 대해서는, 藏府表裏의 관점에서 左寸은 小腸, 右寸은 大腸이라는 說, 左腎水右命門相火의 관점에서 左尺은 大腸, 右尺은 小腸이라는 說, 所屬藏의 左右配屬을 따른 관점에서 左尺은 小腸, 右尺은 大腸이라는 說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兩手寸關尺의 藏府配屬에 관한 諸家들의 理論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5】참조)

2) 輕重法の 藏府配屬理論

輕重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四難의 陰陽法과 관련시켜 五難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즉 一指로 氣口部位를 浮沈으로 按之하여 浮部에서 沈部까지를 五分하고, 이를 肺, 心, 脾, 肝, 腎의 診脈部位로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醫家로는 宋代 王宗正과 朝鮮末 李圭峻을 들 수 있다. 王宗正의 견해는 단지 『本草綱目·脈訣考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當從心肺俱浮, 腎肝俱沈, 脾在中州之說 王叔和獨守寸關尺分部位, 以測五藏六府之脈者非也.¹⁰⁷⁾

다음으로 李圭峻의 견해는 『素問大要』 및 『素問附說·脈解』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法을 설명한 經文을 통해서 『難經』의 輕重法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102) 徐春甫, 古今醫統秘方大全, 前掲書, P. 336. “大腸小腸膀胱皆屬膽之下, 宜以兩尺後半部, 而分左右候之, 小腸從心列左, 大腸從肺列右, 膀胱與小腸相通, 而同其候則是也.”

103) 李中梓, 醫宗必讀, 前掲書, p. 43. “夫寸主上焦以候胸中, 關主中焦以候胃中, 尺主下焦以候腹中, 此人身之定位, 古今之通論也. 大小腸皆在下焦腹中, 僞訣越中焦而候之寸上, 有是理乎? 滑伯仁見及此, 以左尺候小腸膀胱前陰之病, 右尺主大腸後陰之病, 可稱千古只眼.”

104)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890~891. “右寸肺胸, 左寸心膈. 右關脾胃, 左肝膈膽. 上部三焦兩尺兩腎. 左小膀胱, 右大腸謁. (注)不及大腸小腸膀胱者, 以統于腹中也. 不及三焦者, 以寸候胸中, 主上焦也. 關候膈中主中焦也. 尺候腹中主下焦也. 此遵『內經』分配三部診脈法也. 至爲訣以大小腸配于寸上, 以三焦配于左尺, 以命門配于右尺, 其手厥陰心包, 竟置而不言悉屬不經. 滑壽以左尺候小腸膀胱前陰之病, 右尺候大腸後陰之病, 可稱千古只眼也.”

105)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90. “然, 脈之兩尺, 左爲水位, 乃眞陰之舍也. 右爲火位, 乃元陽之本也. 小腸屬火, 而火居火位, 故當配於下之右, 大腸屬金, 而水相從, 故當配於下之左.”

106) 喻昌,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6, pp. 31~35. “膀胱子戶之應, 合之, 尺外以候腎, 尺裡候腹中, 但小腸當候之于右尺, 以火從火也. 大腸當候之于左尺, 以金從水也. 三焦屬火, 亦候于右腎, 膀胱屬水, 亦候于左腎.”

107) 李時珍, 本草綱目(脈訣考證), 前掲書, p. 4.

같다.

李圭峻은 『素問附說·脈解』에서 “一氣가 屈伸(動靜)하여 四時가 변화하고 陰陽이 升降하니

【도표 5】

左右三部 藏府配合 著作名稱 作者姓名/成書年代	寸		關		尺	
	左	右	左	右	左	右
『內經』 秦~東漢時代	心 臍中	肺 胸中	肝 鬲	胃 脾	腎 腹(中)	腎 腹(中)
『難經』 東漢中期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脾 胃	腎 膀胱	心包絡 三焦
『脈經』 王叔和著于魏晉年間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脾 胃	腎 膀胱,三焦	腎,命門(子戶) 膀胱
『脈訣』 六朝人高陽生著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脾 胃	腎	命門
『四言舉要』 宋·崔嘉彥, 1189年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脾 胃	腎 命門	腎 命門
『診家樞要』 元·滑壽, 1359年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脾 胃	腎,命門 膀胱	心包絡 三焦
『瀕湖脈學』 明·李時珍, 1564年	心	肺	肝 膽	胃 脾	腎 小腸,膀胱	命門 大腸
『醫學入門』 明·李梴, 1575年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脾 胃	腎 膀胱	心包絡 三焦·命門
『景岳全書』 明·張介賓, 1624年	心 心包絡	肺 臍中	肝 膽,鬲	胃 脾	腎 大腸,膀胱	腎·命門 小腸,三焦
『醫宗必讀』 明·李中梓, 1637年	心 臍中	肺 胸中	肝 膽,鬲	胃 脾	腎 小腸,膀胱	腎 大腸
『醫宗金鑑』 清·吳謙, 1742年編	心 臍中	肺 胸中	肝 膽,鬲	胃 脾	腎 小腸,膀胱	腎 大腸

『素問·脈要精微論』: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臍中.

脈도 이와 같이 上下(浮沈)로 활동한다. 그래서 春脈을 弦, 夏脈을 鉤, 長夏脈을 代, 秋脈을 毛, 冬脈을 石이라 한다. 呼出心肺하고 吸入肝腎하니 呼吸이 왕래함에 生氣를 가히 진찰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아래 뼈가 닿는 곳을 尺이다. 가장 아래 뼈가

닿는 곳을 尺이라 하고 안으로서는 臂을 살피고 밖으로는 少腹을 살핀다. 그 上을 附上(붙여서 올린)이라 하는데, 左의 內에서 肝을 살피고 外에서 鬲을 살피며, 右의 內에서 脾를 살피고 外에서 胃를 살핀다. 또 그 上을 上附上(그 위로 붙여 올린)이라 하는데, 이 左의 內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臆中을 살피고 右의 內에서 肺를 살피고 外에서 胸中을 살핀다.”¹⁰⁸⁾라고 하여, 四時氣의 升降에 의하여 나타나는 五藏脈인 毛鉤代弦石과 『難經』의 陰陽法, 輕重法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尺者氣口之下位, 審其深也.”¹⁰⁹⁾라고 註하여 尺部를 臂의 診脈部位로 해석하였고, “左右者, 層數也.”¹¹⁰⁾라고 하여 상하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에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과 “左, 外以候心, 內以候臆中.”의 문장 전후 배열순서를 바꾸고, 또 본문의 ‘內’와 ‘外’를 각각 浮部와 沈部로 按之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脾胃를 제외하고 ‘外’에 藏을 배속시키고, ‘內’에 府를 배속시킨 經文을 ‘內에 藏, 外에 府’로 相易하여 校訂하였다.¹¹¹⁾

그리고 그는 寸關尺을 설명한 『難經·二難』의 “從關至尺澤是尺內, 從關至魚際是寸口.”는 맥을 짚는 방법이 輕重法과는 서로 모순되므로, 王叔和가 『脈訣』을 作함에 이르러 經義를 어지럽게 한

것¹¹²⁾이라 하여 寸關尺氣口診脈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 『素問·脈要精微論』의 經文에 대한 李圭峻의 견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內外的 藏府配屬을 相易하여 校訂한 이유를 살펴보면, 『醫宗金鑑』에서 吳謙이 이미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內, 外”二字를, 前人은 尺部一脈을 前半部脈과 後半部脈으로 해석한 경우와 內側을 內라하고 外側을 外라고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는 잘못된 것이다. 대개 脈의 形은 渾然純一하여 두 가지 조문이 있을 수 없으며, 또 한 둘로 끊어진 것도 아니다. 만약 (內外를) 前半部와 後半部라고 한 것이 옳다면, 脈을 볼 때 둘로 끊는 것이다. 만약 尺內側과 尺外側이 옳다면 脈을 볼 때 두 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說이 모두 틀림을 알 수 있다. 經文의 모든 章을 熟玩하면 그것을 傳寫할 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右外以候胃, 內以候脾’라고 傳寫한 脾胃의 진맥부위에만 있겠는가? 대개 外는 府를 候하고 內는 藏을 候한다. 『內經』에서 脈을 설명한 편을 제대로 상고하면, 마땅히 “外以候胃, 內以候脾”의 문구가 바른 것임을 알 수 있다. …中附上의 左右의 “內, 外”字와 上附上의 左右의 “內, 外”字를 모두 고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전의 도서를 좇지 않고서도 外는 府를 候하고, 內는 藏을 候한다는 의미와 부합이 된다.”¹¹³⁾라고 하여, 본문의 ‘內’

108) 李圭峻, 素問大要(韓國醫學大系 第42卷), 서울, 麗江出版社, 1988, pp. 315~316. “其生氣貫通一也. ……一氣屈伸, 四時變化, 陰陽升降, 脈與之上下, 故春脈曰弦, 夏脈曰鉤, 長夏脈曰代, 秋脈曰毛, 冬脈曰石, 呼出心肺, 吸入肝腎, 呼吸往來, 生氣可診, 故下位曰尺, 內以候腎, 外以候少腹, 其上曰附上, 左, 內以候肝, 外以候鬲; 右, 內以候脾, 外以候胃, 其上曰上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候臆中,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

109) 上揭書, p. 203

110) 李圭峻, 素問大要(附說), 李元世筆寫本, p. 141.

111) 李圭峻, 素問大要(影印本), 前揭書, p. 315. “故下位曰尺, 內以候腎, 外以候少腹, 其上曰附上, 左, 內以候肝, 外以候鬲; 右, 內以候脾, 外以候胃. 其上曰上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候臆中,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

112) 上揭書, p. 317. “其論尺寸則, 曰從關至尺澤是尺內, 從關至魚際是寸口, 此與前說, 自相矛盾, 是豈越人之終始乎? 抑方士秘藏而謬亂之邪, 至王叔和作脈訣, 愈析愈離, 眞言遂隱矣.”

113) 吳謙, 醫宗金鑑, 前揭書, p. 908. “內, 外”二字, 前人是以尺部一脈, 前半部脈, 後半部脈爲訓者; 有以內側曰內, 外側曰外爲訓者, 皆非也. 蓋脈之形, 渾然純一, 并不兩條, 亦不兩載. 若以前半部, 後半部爲是, 則視脈爲兩載矣. 若以尺內側, 尺外側爲是, 則視脈爲兩條

와 '外'를 '內側과 外側', '後半部와 前半部'라고註한 王冰¹¹⁴⁾과 張介賓¹¹⁵⁾의 견해를 틀렸다고 하였다. 脈을 짚으면 診脈部位를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가 되므로, 內側이나 前半部를 옮겨 짚으면 藏府脈의 部位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內는 五藏, 外는 六府를 살펴야 옳다고 하여, 본문의 內外는 傳寫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하여 清代 黃琳은 『內經』에서 外를 五藏, 內를 六府로 한 이유를 『脈確』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藏府를 陰陽으로 論하면 藏은 陰이고 府는 陽이다. 藏府의 氣로써 論하면 오히려 藏氣는 淸하고 府氣는 濁하다. 淸氣는 上升하고 濁氣는 下降한다. 藏氣는 淸하기 때문에 浮部에서 살피고, 府氣는 濁하기 때문에 沈部에서 살핀다.”¹¹⁶⁾라고 하여, 藏氣는 淸淨하여 上升하고 府氣는 重濁하여 下降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자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즉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淸陽爲天, 濁陰爲地.”¹¹⁷⁾라고 하였고, 또 『素問·五藏別論』에서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瀉而不藏, 此受五藏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 輸瀉也, ……所謂五藏者藏精氣而不瀉也, 故滿而不能實.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也.”¹¹⁸⁾라고 하여, 六府는 淸陽인 天의 氣象을 본받아 動的으로 五藏의 濁陰을 傳化하는 역할을 하고, 五藏은 濁陰인 地의 氣象을 본받아 靜的으로 精氣를 藏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陽의인 六府는 浮部에서, 陰의인 五藏은 沈部에서 살펴야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 '左·右'의 개념에 대하여 『內經』의 문장에서 層數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찾아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素問·血氣形志篇』: 欲知背俞, 先度其兩乳間, 中折之, 更以他草度去半已, 卽以兩隅相柱也, 乃舉以度其背, 令其一隅居上, 齊脊大椎, 兩隅在下, 當其下隅者, 肺之俞也. 復下一度, 心之俞也. 復下一度, 左角肝之俞也. 右角脾之俞也. 復下一度, 腎之俞也. 是爲五藏之俞.¹¹⁹⁾

본 문장에서 肺俞는 三椎之間, 心俞는 '復下一度'한 五椎之間이 된다. 그리고 心俞에서 '復下一度'하면 七椎之間이 되는데, 제자들은 七椎之間의 왼쪽 모서리는 肝俞, 오른쪽 모서리는 脾俞라고 해석하여, 『靈樞·背俞篇』의 “肝俞在九椎之間, 脾俞在十一椎之間”¹²⁰⁾과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¹²¹⁾ 그런데 左를 '復下一度', '復下一度'의 중복

矣. 故知二說皆非也. 熟覽通章經文, 自知其爲傳寫之訛. 豈有獨于脾胃. 右外以候胃, 內以候脾者耶? 蓋外以候府, 內以候藏, 「內經」脈書, 確然可考, 故當以「外以候胃, 內以候脾」之句爲正. 其尺外之「外」字, 當是「裏」字, 尺裏之「裏」字, 當是「外」字. 中附上, 左右之「內」, 「外」字, 上附上, 左右之「內」, 「外」字, 皆當改之. 故不循旧圖所列, 以符外候府, 內候藏之義也.”

114) 王冰, 補注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152. “尺外謂尺之外側也, 尺裏謂尺之內側也.”

115) 張介賓, 類經, 前揭書, pp. 97~98. “尺外, 尺脈前半部也, 尺裏, 尺脈後半部也.”

116) 黃世林, 孫明異, 中醫脈象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 5~6. “浮陽也, 沈陰也. 以藏府論則藏陰而府陽, 以藏府之氣論則藏氣淸而府氣濁. 淸氣上升, 濁氣下降. 脈之見于寸關尺者, 五藏六府之氣, 藏氣淸故浮候之, 府氣濁故沈候之也.”

1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23.

118) 上揭書, p. 42.

119) 前揭書, p. 95.

1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揭書, p. 235.

121) 張介賓, 類經(上), 前揭書, p. 176. “按肝俞脾俞腎俞, 以此法折量, 乃與前「背俞篇」, 及「甲乙經」「銅人」等書, 皆不相合, 其中未必無誤, 或古時亦有此別一家法也. 仍當以前「背俞篇」, 及「甲乙」等書者爲

을 피하기 위한 '復下一度'의 '다음 層'으로 해석하면, 心俞에서 '復下一度'한 七椎之間에서 한번 더 復下一度を 한 九椎之間이 肝俞가 되며, 또 한번 復下一度を 한 右는 十一椎之間인 脾俞가 되기 때문에, 『靈樞·背俞篇』의 "肝俞在九椎之間, 脾俞在十一椎之間"¹²²⁾과 서로 일치한다. 이에 근거하면 『素問·血氣形志篇』의 左右는 '復下一度'인 層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史記·文帝記』의 "右賢左戚"을 韋昭가 '右猶高, 左猶下'라고 註한 의미를 취하면 李圭峻의 관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에 대하여, '內外'字를 相易하고, '左右'의 개념을 層數로 해석하고, 左心右肺의 전후문장 배열순서를 바꾸어 輕重法으로 해석한 것은 『難經』의 輕重法이 五藏診脈法の 正法이라고 생각하여, 本 經文을 여기다가 牽强附會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輕重診脈法은 『素問·宣明五氣篇』, 『素問·玉機真藏論』 등에 산재되어 나오는 四時氣象의 升降에 따른 五藏脈象인 毛鉤代弦石과 相應하므로 藏府의 虛實을 살피에 있어서 임상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診脈法이라고 생각된다.

李圭峻의 輕重診脈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6】 참조)

총괄적으로 元代以後 氣口脈의 藏府配屬에 있어서 寸關尺診法자들은 二難과 十八難 및 『脈

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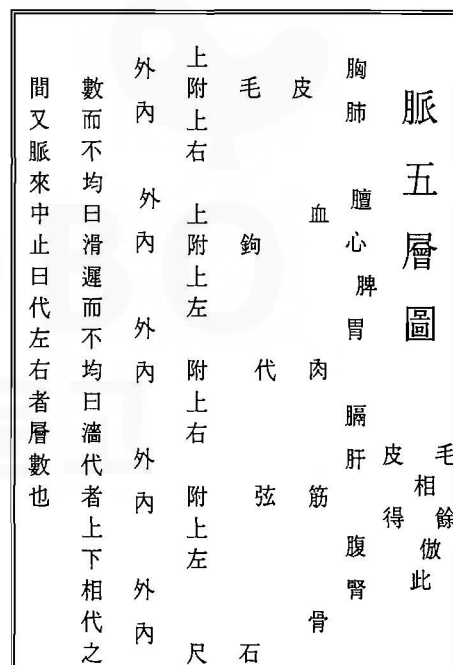
1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掲書, p. 235.

經』의 兩手寸關尺 관점에서 『素問·脈要精微論』과 관련시켜 寸關尺診法の 논리적 정당성을 확립시켰고, 반면에 輕重法診法자들은 四難과 五難의 관점에서 『素問·脈要精微論』과 관련시켜 輕重診法の 논리적 정당성을 확립시켰다.

III. 結 論

『難經』에서 氣口에 대한 寸關尺 및 輕重法이
【도표 6】

李圭峻의 脈五層圖



「本圖는 李圭峻의 제자인 李元世(無爲堂)의 筆寫本 『素問大要』 末尾에 기재된 것을 옮겼음」

처음으로 제시되면서부터 『脈經』에 이르러 左右手藏府配屬理論이 확립되기까지의 理論의 相關性을 살펴본 후,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

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臍中.”이라 한 것에 대하여, 輕重法으로 본 醫家들과 寸關尺法으로 본 醫家들의 논설을 중심으로 比較, 研究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寸關尺法은 二難에서 關에서 尺澤穴側으로一寸이 되는 부위를 尺, 關에서 魚際側으로九分이 되는 부위를 寸이라고 하여 寸關尺의 위치를 제시하였으며 十八難에서는 五行子母相生에 근거하여 六經을 배속시킨 이후로, 唐代의 楊玄操, 宋代의 丁德用, 虞庶 등은 『脈經』의 관점에서 兩手寸關尺法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¹²³⁾
2. 『脈經』의 관점에서 兩手寸關尺法의 藏配屬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3. 『素問·脈要精微論』의 經文을 氣口診脈法の 효시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元代 滑壽이며, 以後로 明代 馬蒔, 張介賓, 李中梓, 清代 徐大椿 등은 이에 영향을 받아 본문을 氣口寸關尺法으로 해석하였다. 이상 醫家들의 관점에서 藏府配屬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4. 『素問·脈要精微論』의 經文을 輕重法으로 본 李圭峻은 본문의 '尺'을 '氣口之下位也, 言其深也.'라 하였고, '左右者層數也'라고 해석하였으며, 內外藏府配屬에 있어서 '內'에서 藏을, '外'에서 府를 살펴야 한다고 校訂하여,

輕重法の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李圭峻의 관점에서 藏府配屬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5. 寸關尺診法家들은 『難經』의 二難과 十八難 및 『脈經』의 관점에서 『素問·脈要精微論』과 관련시켜 兩手寸關尺診脈法の 논리적 정당성을 확립시켰고, 반면에 輕重法診法家들은 四難과 五難의 관점에서 『素問·脈要精微論』과 관련시켜 輕重診脈法の 논리적 정당성을 확립시켰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1. 金泰熙,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研究, 博士學位, 서울, 慶熙大學校, 1987.
2. 李圭峻, 素問大要(附說), 李元世筆寫本.
3. 李圭峻, 素問大要(韓國醫學大系 第42卷), 서울, 麗江出版社, 1988.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6.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7. 丹波元簡, 素問識 難經疏証, 韋修堂醫書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8. 戴啓宗, 脈訣刊誤(中國醫學大系), 서울, 麗江出版社, 1987.
9. 馬蒔, 素問註證發微, 서울, 大星出版社, 1994.
10.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1. 徐大椿,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

※ 編輯者注: 編輯上の 문제로 結論의 圖表는 맨뒤로 옮깁니다.

- 社, 1991.
12. 徐春甫, 古今醫統秘方大全, 台北, 新文豐出版社, 1982.
13. 楊士瀛, 仁齋直指附遺方論,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1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出版社, 1986.
15.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6. 王九思 等集注, 難經集注, 台北, 中華書局, 1985.
17. 王綸 撰, 薛己 注, 名醫雜著, 香港,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18. 王冰, 補註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19. 王利器主編, 史記注譯, 北京, 三秦出版社, 1988.
20.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21. 劉完素,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22. 喻昌,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6.
23.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24. 李時珍, 本草綱目, 香港, 商務印書館, 1930.
25.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26. 李挺,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5.
27.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8.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2.
29. 張機,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30. 張機,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31. 張世賢, 校正圖註王叔和脈訣, 台南, 大孚書局, 1977.
32. 張志聰, 素問集注, 서울, 大星出版社, 1994.
33.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4.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35. 滑壽, 難經本義, 台北, 臺灣大同書局, 1979.
36. 滑壽, 難經本義, 台南, 世一書局有限公司, 1977.
37. 黃世林, 孫明異, 中醫脈象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Abstract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vicera of the pulsation examination method of the KiGu

For the first time, the theory of ChonKwanChuk(寸關尺) and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of KiGu(氣口) were formed in 『NanKyung(難經)』. After that, the vicera assignment theory at left and right hands(左右手藏府配屬理論) was established in 『MaekKyung(脈經)』.

After Reserching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the two books, theories between the doctors who understood the examination method of ChukBu(尺部診法) of 『Somun · MaekYoJungMiRon(素問 · 脈要精微論)』 as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and the doctors who understood that method as the method of ChonKwanChuk(寸關尺) were compared and research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position of ChonKwanChuk(寸關尺) of the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uk(寸關尺法) is explained at 2nd Nan(二難) of 『NanKyung』 as follows. Chuk(尺) is the position which is 1Chon(1寸, unit) distant from Kwan(關) to the direction of ChukTaek acupuncture point(尺澤穴) and Chon(寸) is the position which is 9Pun(9分, unit) distant from Kwan(關) to the direction of EoJe acupuncture point(魚際穴). And the six vessels(六經) were assigned to ChonKwanChuk(寸關尺) on the basis of OHaengJaMoSangSaeng(五行子母相生) at 18th Nan(18難) of NanKyung. After that Yang Hyun-Jo(楊玄操) at Tang Dynasty, Jung Deok-Yong(丁德用), Woo Seo(虞庶) at Song dynasty explained the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uk(寸關尺法) of NanKyung as the method of ChonKwanChuk of two hands(兩手寸關尺法) from the viewpoint of 『MaekKyung(脈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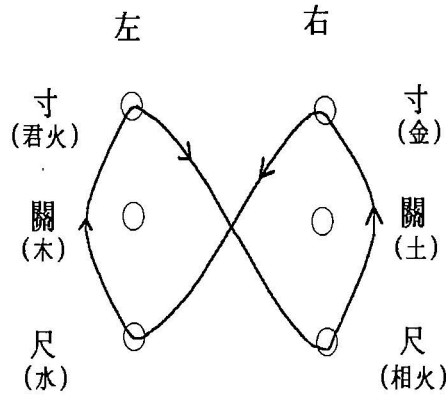
2. From the viewpoint of MaeKyung, the vicera assignment of the two hand ChonKwanChuk method is as follows. At Chuk of left hand, the Heart and Small intestine are assigned. At Kwan of left hand, the Liver and Gall Bladder are assigned. At Chuk of left hand, the Kidney and Bladder are assigned. At Chuk of right hand, the Lung and Large intestine are assigned. At Kwan of right hand, the Spleen and Stomach are assigned. At Chuk of Right hand, the Vital Gate(命門) and Bladder are assigned.

3. For the first time, HwalSu(滑壽) at Won dynasty said that the paragraph “尺內兩傍……” of 『Somun · MaekYoJungMiRon』 is the first of the examination method of KiGu(氣口診脈法). After that

Ma Shi(馬蒔), Jang Gae-Bin(張介賓) of Myung Dynasty, Jang Ji-Chong(張志聰), Seo Dae-Chun(徐大椿) of Chung Dynasty who were influenced by him explained that paragraph as the method of KiGuChonKwanChuk(氣口寸關尺法).

4. Lee Kyu-Jun(李圭峻) explained the paragraph “尺內兩傍……” of 『Somun · MaekYoJungMiRon』 as the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and explained Chuk(尺) as the paragraph ‘Chuk is low position of Kigu, and it means the depth(氣口之下位也, 言其深也.)’ and explained that ‘the Left and the Right is layers(左右者層數)’. And he revised that the Jang(藏) must be examined at the inner part and the Bu(府) must be examined at the outer part. By this, he settled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5. The doctors who used the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uk(寸關尺診法) settled their logical justification of the two hand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uk(兩手寸關尺診法) by connecting with 『Somun · MaekYoJungMiRon』 from the viewpoint of 2nd Nan(難) and 18th Nan(難) of NanKyung and MaekKyung. On the contrary, the doctors who used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診法) settled their logical justification of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診法) by connecting with 『Somun · MaekYoJungMiRon』 from the viewpoint of 4th Nan(四難) and 5th Nan(五難).



『五行子母相生圖』 結論 1.

三部	經脈配屬			
上部	手少陰	手太陽	手太陰	手陽明
中部	足厥陰	足少陽	足太陰	足陽明
下部	足少陰	足太陽	手少陰	手太陽

『部有四經圖』 結論 1.

左手		三部	右手	
藏 (經脈)	府 (經脈)		藏 (經脈)	府 (經脈)
心 (手少陰)	小腸 (手太陽)	寸	肺 (手太陰)	大腸 (手陽明)
肝 (足厥陰)	膽 (足少陽)	關	脾 (足太陰)	胃 (足陽明)
腎 (足少陰)	膀胱 (足太陽)	尺	腎, 命門 (子戶) (足少陰)	膀胱 (足太陽)

結論 2.

左右三部 藏府配合 著書名稱 作者姓名	寸		關		尺	
	左	右	左	右	左	右
『診家樞要』 元·滑壽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胃 脾	腎, 命門 膀胱	心包絡 三焦
『素問註證發微』 明·馬蒔	心 膻中	肺 胸中	肝 膈	胃 脾	腎 腹	腎 腹
『景岳全書』 明·張介賓	心 心包絡	肺 膻中	肝 膽	胃 脾	腎 大腸, 膀胱	腎·命門 小腸, 三焦
『醫宗必讀』 明·李中梓	心 膻中	肺 胸中	肝 膽, 膈	胃 脾	腎 小腸, 膀胱	腎 大腸
『難經經釋』 清·徐大椿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胃 脾	腎 膀胱	心包絡·命門 三焦

結論 3.

結論 4.

